

서원향사



書院享祀
도산서원



서원향사



書院亭記
서원향사

일러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소수서원》(2008년), 《도산서원》(2011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에는 입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본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행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김광년(제례)·이명진(운영)·안경혜(역사), <도산서원>은 김미영(역사, 제례)·이명진(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운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조사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서원인 소수서원과 퇴계 학문의 요람인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두 서원은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目次

150 Ⅱ. 도산서원 향사

153 1. 도산서원의 역사

- 1) 도산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 2) 도산서원의 배향인물

183 2. 도산서원의 향사

- 1) 개요
- 2) 알요례(謁廟禮)
- 3) 향사례(享祀禮)
- 4) 천망(燕望)
- 5) 제물(祭物)
- 6) 제구(祭具)





287 3. 도산서원 향사의 특징

289 4. 고고사(考古事)

295 5. 도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2) 전승과 지속

308 도산서원 흥기





目次

322 Ⅲ. 부록

324 1. 소수서원 원규

326 2. 도산서원 원규





II



도산서원향사



陶
山
書
堂

1. 도산서원의 역사

1) 도산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1)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현의 제향⁰¹과 유생의 강학⁰²을 위해 조선 중기 이후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묘·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였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 관학⁰³과 차이가 없지만, 제향의 대상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이 아닌 선현이라는 점, 설립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역 사림이라는 점 등에서 관학과 구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신재⁰⁴ 주세붕⁰⁵(1495~1554)이 1543년(중종 38) 경상도 순흥에 건립한 백운동서원⁰⁶이다. 주세붕은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1542년 8월 이곳 출신의 고려 말 성리학자인 회헌⁰⁷ 안향⁰⁸(1243~1306)을 모시는 문성공묘⁰⁹를 세웠고, 이듬해 8월에는 유생의 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사당 동쪽에 설립하였다. 이처럼 선현을 제향하기 위한 '사'와 유생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기르기 위한 '재'를 동일 영역에 둔 것은 백운동서원이 처음이었다.

백운동서원이 국가의 인정을 받아 정착하게 된 것은 퇴계¹⁰ 이황¹¹(1501~1570)에 의해서이다. 1548년(명종 3) 10월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1549년 정월 경상도관찰사 심통원¹²(1499~?)을 통해 백운동서원에 조정의 사액을 바라는 「상심방백」¹³을 올리고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명종은 이를 허락하고 1550년 2월 21일 '백운동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내렸다.⁰¹

퇴계는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게 함으로써 서원을 관립교육기관인 향교에 대응하는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 도하¹⁴의 아카데미로 격상시켰다. 퇴계는 심통원에게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건의하는 글에서 "서원은 향교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반드시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사액서원에 서적과 편액, 그리고 토지와 노비를 내려야 하며, 사액서원은 한 고을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고, 선현의 옛터에 서원이 건립되면 교학이 밝아지고 선비들의 풍습과 습속을 아름답게 하여 임금의 다스림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⁰² 이후 퇴계는 영주의 이산서원¹⁵, 성주의 영봉서원¹⁶, 예안의 역동서원¹⁷, 대구의 연경서원¹⁸ 등 여러 서원의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¹⁹를 지어 보내는 등 서원 건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⁰³

퇴계는 1551년 1월, 49세가 되던 해에 풍기군수를 사임하고 지금의 도산서원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서암²⁰ 동북쪽 계천²¹ 위에 도산서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계상서당²²을 세웠는데, 이곳에서 월천²³ 조목²⁴(1524~1606), 백담²⁵ 구봉령²⁶(1526~1586), 지산²⁷ 김발원²⁸(1524~1589), 인제²⁹ 권대기³⁰(1523~1587) 등의 문인을 맞아 하분 강론을 시작하였다.⁰⁴ 당초 계상서

01 이상해, 「퇴계의 사원 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도산서원』(한길사, 2001), 293~294쪽.

02 연동대학교 인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사상의 승경을 찾아서」(예문서원, 2000), 26~27쪽.

03 정연주, 「朝鮮書院의 성립과정」, 『韓國史論』(국사편찬위원회, 1981), 50~51쪽.

04 권오봉, 「퇴계학연표」, 252쪽.



계상서당 界上書堂

당은 온돌조차 갖추지 않은 허술한 건물이었다.⁰⁵ 서당 앞에는 직사각형의 방당(方堂)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담장 입구에는 석문(石門)을 세우고 외나무다리를 놓았다. 또 마당에는 송·죽·매·국·연에 자신을 포함하여 육우원(六友園)을 조성하기도 했다. 퇴계는 도산서당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상서당에서 도산으로 왕래했으며, 죽음도 이곳에서 맞이했다.⁰⁶ 그만큼 계상서당은 퇴계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던 것이다.

계상서당 시절 퇴계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잠시 관직에 나가 있다가 사퇴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계상서당이 협소하다는 이유와 제자들의 간청으로 1560년 60세되던 해에 도산 자락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완성하고 이듬해에는 농운정사(農雲精舍)를 낙성한다. 당초 그는 평소 즐겨 찾던 청량산을 염두에 두었으나 산세가 험난하여 병약한 몸으로 오르내리기에 적당치 않다는 판단으로 현재의 위치에 도산서당을 완성하였다. 이곳은 예전에 용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해서 '질그릇 도록, 뽕 산' 자를 써서 도산(陶山)이라 불렀으며, 주변에는 영지산과 청량산 줄기가 병풍처

05 권오봉, 『퇴계의 燕居와 서당 형성』, 82쪽.

06 이장우 외, 『퇴계마을의 노래』(지식산업사, 1997), 251쪽.

림 감싸고 있어 심신을 수련하고 학문을 닦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고 도산서당기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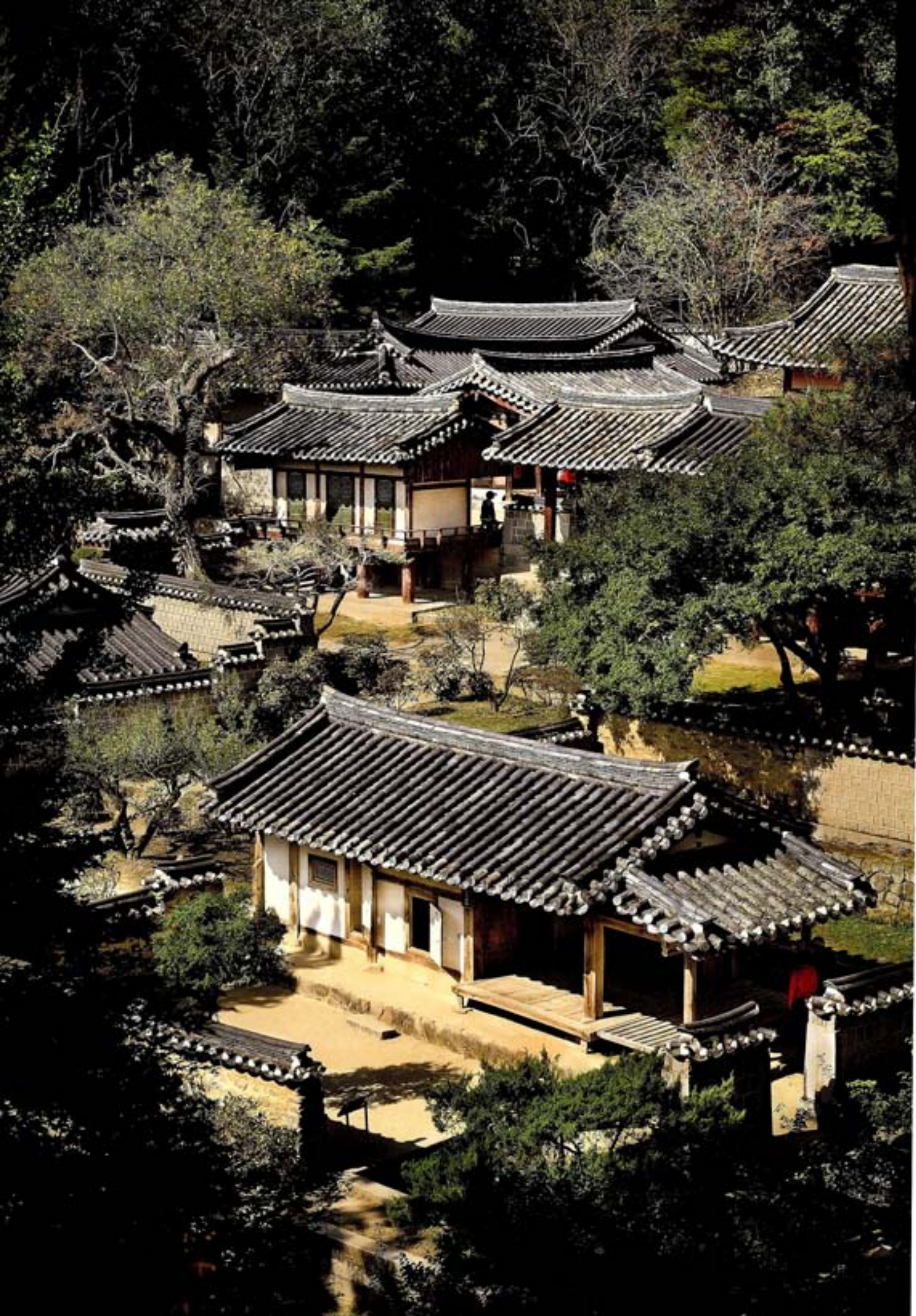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3년 상을 마치자 그의 제자들과 고을 선비들은 1574년(선조 7) 봄 “도산은 선생이 도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서당 뒷편으로 땅을 개척해서 서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7월 도산서당 뒤편에 도산서원이 창건되었고, 그 이듬해인 1575년 8월 낙성과 함께 선조로부터 ‘도산^{道山}’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가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받았다. 1576년 2월 정축일에는 사당을 준공하여 퇴계의 신위를 모셨으며, 1615년(광해군 7)에는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을 종향^{宗向}하였다. 도산서원은 건립 이후 중수와 화장을 거쳤고,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된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도산서원은 1969년과 1970년에 정부의 고적보존정책에 따라 성역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모습에서 바뀐 곳이 많다. 서원 일대는 1969년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다.

[도산서원 연혁]

- 1557년(명종 12) 승려 범연^{法演}에게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건립케 함
- 1561년(명종 16) 승려 청일^{淸日}이 도산서당 완공
- 1570년(선조 3) 퇴계선생 70세를 일기로 역제
- 1572년(선조 5) 상덕사^{上德寺}에 위패 봉안 결정
- 1574년(선조 7) 유림의 공의로 사당을 짓고 서원 설립(전교당, 동·서재)
- 1575년(선조 8) 서원 낙성, ‘도산서원^{道山書院}’으로 사액됨
- 1576년(선조 9) 도산서원 완공, 위패 봉안, 시호 문순^{文純}
-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사^{從祀}
- 1615년(광해군 7) 사림이 월천^{月川} 조목^{趙穆} 선생을 종향^{宗向}
- 1792년(정조 16) 정조 임금이 치제^祭를 내림, 도산별과^{道山別科} 시행
- 1796년(정조 20) 시사단^{試士壇}을 세움
- 1819년(순조 19) 장서고^{藏書閣}인 동광명실^{東光明室}로 건립
- 1870년(고종 7)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서 보호됨
- 1930년(경오년) 서광명실^{西光明室}로 증건^{增建}
- 1932년(임신년) 하교직사^{下庫直舍} 이건
- 1969년 도산서원 일대를 사적 제170호로 지정, 문화체육부 복원 및 정비사업 시행
- 1970년 유물전시관 목천각^{穆泉閣} 건립
- 1973년 시사단,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 33호로 지정
- 1977년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설치, 관리운영조례 제정 공포
- 2003년 정판각^{靜板閣} 복원 2,790장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 (위탁)









도산서원 판액(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 서원의 구조

조선시대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제향공간, 강학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공간, 외부에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진입공간, 서원 주변공간 등 크게 다섯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향공간·강학공간·부속공간은 건물과 담으로 둘러싸여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데, 기본적으로 제향공간이 강학공간 뒤에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취하고 있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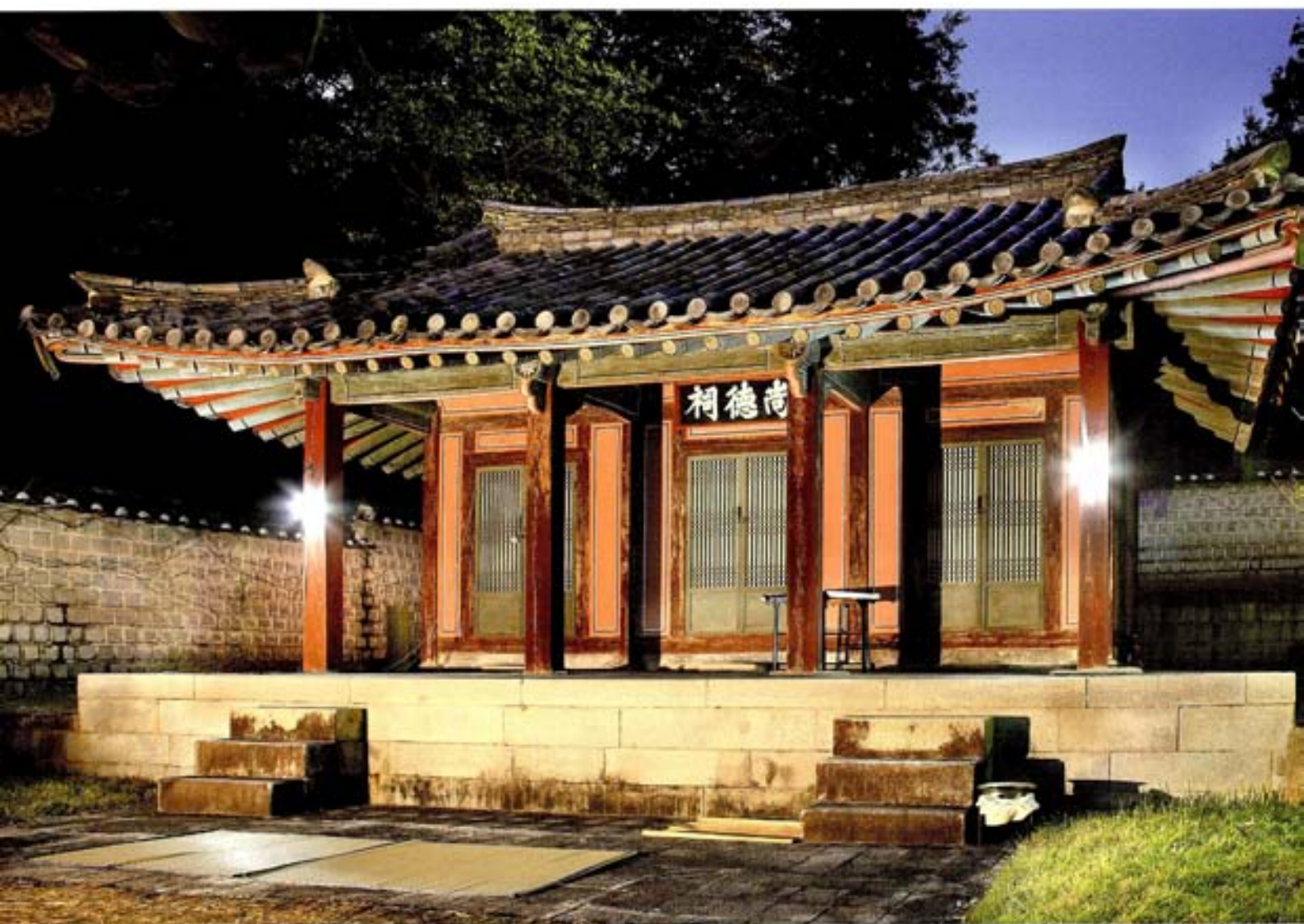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산서원이라 불리는 곳에는 엄밀히 말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직접 건립한 건물로서 농운정사(農雲精舍)·암서원(巖棲軒)·지숙로(止宿路) 등 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산서원은 위의 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제향공간

도산서원의 제향공간은 강당인 전교당(典교堂) 뒤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사당인 상덕사(上德祠)와 제물을 보관하는 전사청(典祀廳)이 있다.

상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흠치마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건물 전면의 반 칸은 외부로 트인 빗간을 형성했으며, 그 뒤 한 칸 반은 우물마루를 깔아 내부공간을 마련하였다. 내부의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마루방을 꾸몄는데 북벽 중앙에 '퇴도(退道) 이선생(李先生)'이라고 쓴 퇴계 선생의 위패가 주향(主向)으로 모셔져 있고, 동쪽 벽에는 서향하여 '원천(源泉) 조공(趙公)'이라고 쓴 원천 선생의 위패가 종향(從向)으로 모셔져 있다. 사당 이름인 '상덕사'는 『주역』의 소축(小畜)괘의 "이미 비 오고 이미 그침은 덕을 숭상하여 가득함이니"(既雨既處 尚德載)에서 취하였다. 상덕사 및 정문과 돌레담은 1970년 보물 제211호로 지정되었다.

전사청(典祀廳)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다른 서원과 달리 세기고(世紀庫)와 주청(主廳) 두 동의 건물이 일곽을 이루며, 상덕사 서남쪽 아래에 위치하여 사당 마당과 전교당 뒷마당으로 각각 통하도록 되어 있다.





전교당 典教堂

강학공간

도산서원 정문인 진도문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서원의 중심 건물인 전교당이 높은 기단 위에 서 있다. 전교당 앞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전교당은 유생들이 강학을 하던 곳으로 1574년(선조 7)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전체적으로 큰 대청을 형성하였고 서쪽에 한존재^{閑存齋}로 불리는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은 원장이 거처하던 곳이다. 대청에는 원규^{元規}, 백록동규^{白鹿洞規}, 사물잡^{事物雜}, 경제잡^{經濟雜}, 국기안^{國器安}, 정조의 사제문^{聖濟文} 등의 현판이 걸려 있고 전교당 정면에는 선조가 하사하고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가 쓴 도산서원 사액 편액이 걸려 있다. 대청 전면은 문짝 없이 트여 있으며, 후벽과 동벽에는 매 칸마다 두 짝 판문을 달았다. 전교당 건물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210호로 지정되었다.



1. 판역
2. 동재 박약재(博約齋)
3. 서재 홍의재(弘毅齋)



서원의 재사^{재사}는 원생들이 기거하면서 독서하던 곳으로 일당양재^{일당양재}의 원칙에 따라 전교당 앞에 동재와 서재 두 건물로 세워졌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동재를 박약재^{박약재}라고 했는데 이는 '박문약예^{박문약예}'에서 취한 말로 '학문은 넓히고 예를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재는 홍의재^{홍의재}라고 했는데 '넓고 의연한 마음을 갖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속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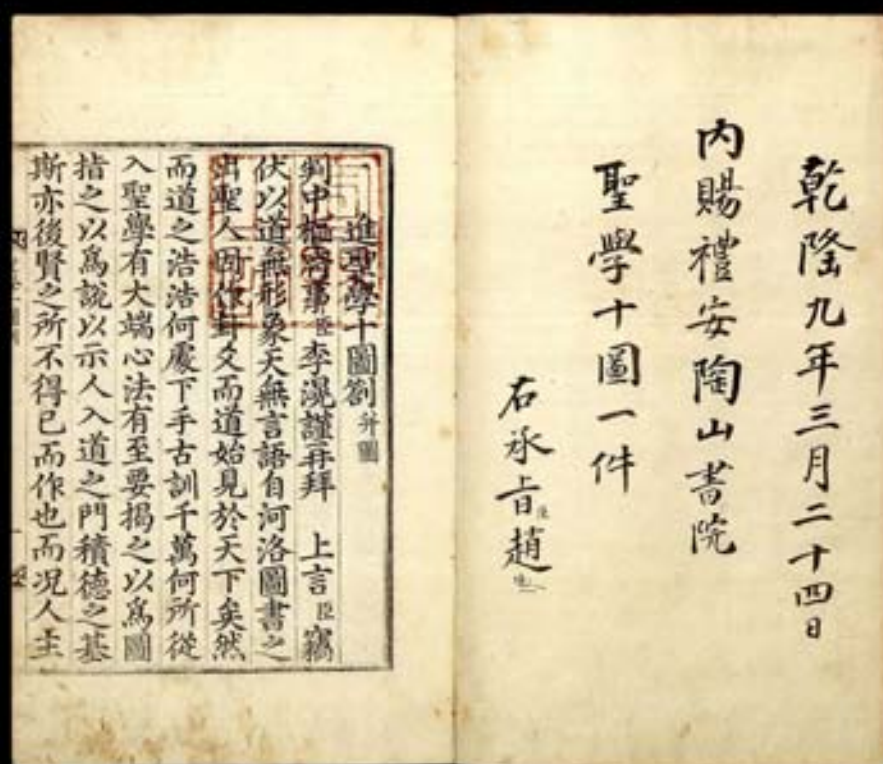
강학공간의 부속건물인 광명실^{광명실}은 전도문 좌우측에 동·서로 나누어 각 한 동씩 있다. 동광명실은 1819년(순조 19)에 지은 건물이고, 서광명실은 동광명실이 험소하다 하여 1930년 새로 지은 건물이다. 광명^{광명}은 '만권서적 해아광명^{萬卷書籍 惠我光明}'에서 취한 말로서 '수많은 서책이 나에게 광명을 준다'라는 뜻이고, 현판은 퇴계 선생의 친필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2층 누각^{누각} 형태로 세웠다. 그리하여 전도문 밖에서 보면 2층 다락집인데, 서원 마당에서 보면 1층 건물이다. 동광명실에는 역대왕들의 내사서적^{내사서적}과 퇴계 선생이 친히 보시던 수택본^{수택본}이 보관되어 있고, 서광명실에는 문도를 비롯한 국내 유학자들의 문집 등 근래에 발간된 총 1,217종, 4,917권에 달하는 서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보관되어 있다.

장판각^{장판각}은 전교당의 동쪽에 위치한 서원의 출판소로서 퇴계선생문집·유목·언행록·도산 12곡·선조어필 등 총 37종 2,790여장의 목판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보관되어 있다. 장판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집으로 온도와 습기가 사계절을 통해 스스로 조절되어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목판이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장대석기단 위에 방주^{방주}를 세우고 전 칸을 우물마루로 깔았다. 기단 위로는 자연석 주초를 놓고 20cm 정도 높게 마루를 깔고 마루 밑은 통풍이 잘 되도록 사방을 개방하였다. 내부는 목판을 보관할 선반을 설치하고 벽체는 판백으로 마감하여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창호^{창호}의 구성은 양 협간 전면에 쌍여닫이 판문을 달고 어간에는 쌍여닫이 새살문을 달았으며, 문틀상부에는 살창을 내어 더워진 내부의 공기와 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전교당 서쪽에는 서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고직^{고직}이 거처하던 상고직사^{상고직사}가 자리하고 있다. 상고직사는 안동지방의 'ㄷ'자형 민가평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1. 동광명실 東光明室
2. 서광명실 西光明室





1. 장판각 소장 장서목록(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 성학십도(成學十圖)(한국국학진흥원 소장)
3. 최계선생문집(崔桂先生文集)(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창원각藏板閣



상고직사 上庫直舍



- 1. 도산서당 陶山書堂
- 2. 도산서당 현판(한국국학진흥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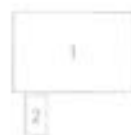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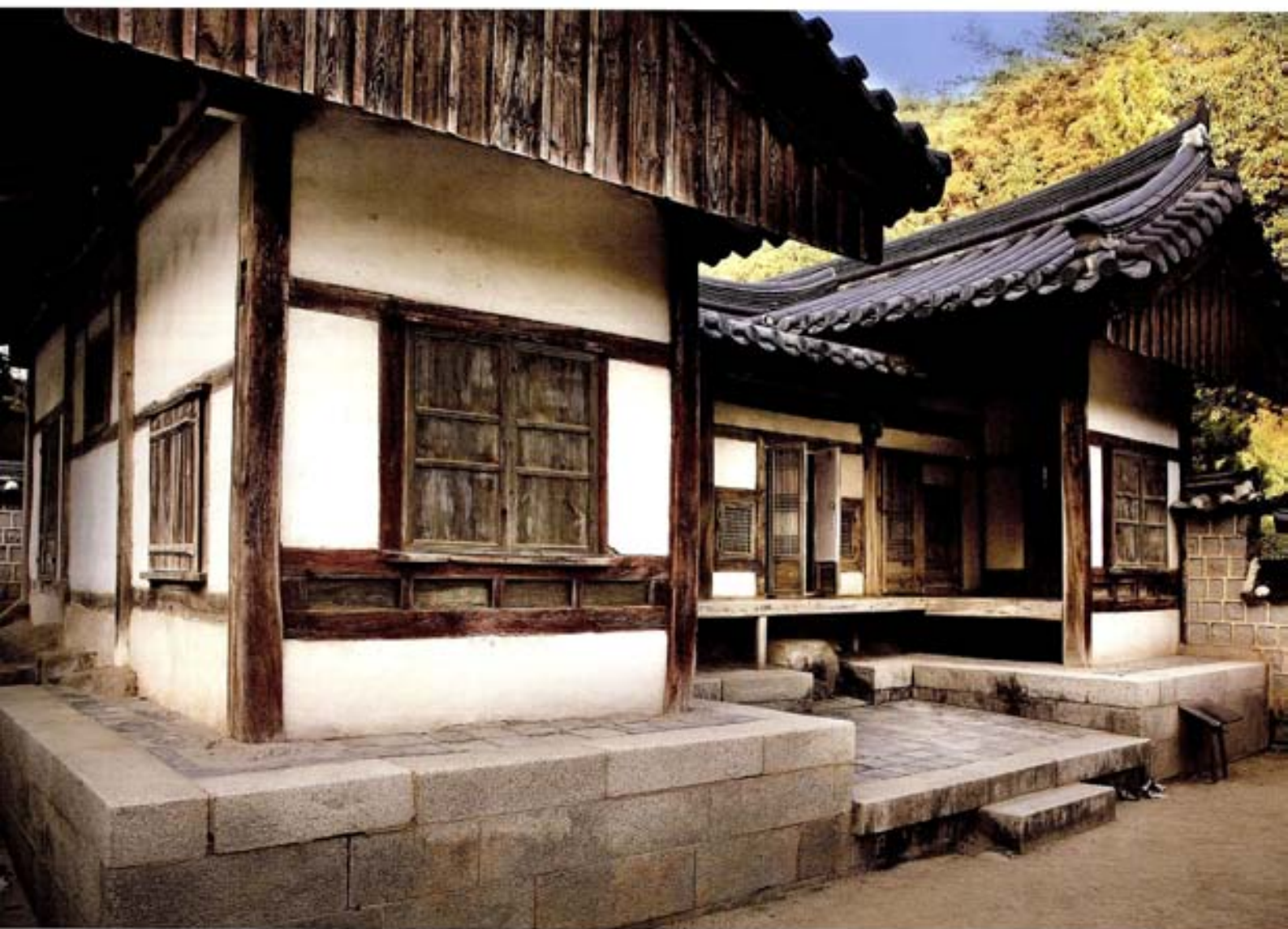
도산서당 陶山書堂

도산서당은 건너편에 자리한 농운정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1557년(명종 12) 퇴계 선생이 승려 법련法師을 시켜 짓기 시작하여 1561년(명종 16)에 승려 정일禪이 완공한 것으로 전한다. 당시의 서당은 정면 3칸 규모로, 가운데 방은 완락재(玩樂齋)라 이름 짓고 마루는 암시현(巖詩軒)이라 했다. 완락재는 주자朱子의 명당실기(明堂實記)에 나오는 '도리(道里)와 이락(逸樂)을 즐기고 완상하며 죽을 때까지 싫어하지 않는다'에서 취했고, 암시현은 주자의 운곡시(雲谷詩)에서 취한 것으로, '학문에 대한 자신감을 오래도록 갖지 못해 바위에 기대어 작은 효험이라도 있기를 바란다'라는 겸손의 뜻을 지니고 있다. 암시현에 잇대어 있는 살림상은 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矩)가 마루가 너무 좁아 여러 명이 앉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설치한 것이다.

농운정사는 공자형(孔子形)의 평면을 갖춘 팔간방(八間房)으로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곳이다. 건물의 평면을 공자(孔子)로 정한 것은 삼채공부(三才工夫)에 전념하기를 바라던 퇴계 선생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한다. 이 건물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는 빛이 충분히 들어와서 글을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문 틈 사이로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함이다.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마루는 '시습재(時習齋)'라 했는데, 이는 『논어』의 '배우고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취한 것으로, 학문연마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서쪽 편에 있는 마루인 관란헌(觀蘭軒)은 유생들이 휴식을 취하던 곳으로 서원 앞에 펼쳐진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의 순리를 터득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마련한 공간이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와는 별개로 1550년대에 세워진 역락서재(逸樂書齋)는 서원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현(知軒) 정사성(鄭士誠, 1545~1607)이 퇴계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 그의 아버지인 죽헌(竹軒) 정두(鄭斗, 1508~1576)가 지어준 건물로, 현판 글씨는 퇴계의 친필이다. 정지현이 어릴 때 공부하던 곳이라 하여 일명 '동몽재(童蒙齋)'라고도 부른다.

옥전각(玉田閣)은 퇴계 이황의 유품을 전시해둔 유물전시관이다. 1970년 정부가 서원일대를 성역화하고 경내를 정비하면서 유적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신축하고 관리인을 상주시켰다. 관내에 전열된 유물은 퇴계가 생전에 사용하던 지팡이·실내용품·문방구·서적·유묵 등이다.



1. 농운정사(龍雲精舍)
2. 농운정사 헌관(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① 대문
- ② 농운정사
- ③ 연지
- ④ 도산서당
- ⑤ 하교직사
- ⑥ 서광명실
- ⑦ 동광명실
- ⑧ 진도문
- ⑨ 상고직사
- ⑩ 서재
- ⑪ 동재
- ⑫ 전교당
- ⑬ 장판각
- ⑭ 내삼문
- ⑮ 상덕사
- ⑯ 전사청





시사단(士士)의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조선 정조 16년(1972) 퇴계의 학역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별과地方別科를 치르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바각대치



2) 도산서원의 배향인물

(1) 퇴계 이황 退溪 李滉

도산서원 상덕사의 주향主向으로 모셔져 있는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진보眞寶 또는 진성眞城이며, 자우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옹陶翁·도수陶叟이다. 시호諡號는 문순공文純公이다. 퇴계는 1501년(연산군 7) 예안현 온계리溫溪里 : 지금의 온제리 溫津里 동택에서 아버지 진사進士 이식李适과 어머니 춘천박씨 사이에서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공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선생을 낳았다’고 하여 대문을 성림문成林門이라 부른다. 퇴계는 현재 ‘퇴계대실’이라고 불리는 안재의 방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춘천박씨 아래서 성장하였다. 12세가 되던 해에 숙부인 송재宋在 李穡 이후李滉(1469~1537)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세 무렵부터는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도연명陶明의 시를 사랑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한 것으로 전한다. 20세를 전후해서는 침식을 잊고 주역 공부에 몰두한 탓에 건강을 잃게 되어 이후 늘 지병을 안고 살았다. 1527년 27세 되던 해 진사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으로 대과공부를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그 후 32세에 문과초시文科初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33세 되던 해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권지부정자가 되면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예문관 검열과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고, 12월에 무공랑無功郞으로 박사博士에 올랐다. 37세가 되던 1537년에는, 4월에 선교랑, 5월에 승훈랑, 9월에 승의랑에 올랐는데 그해 10월에 어머니 춘천박씨의 상喪을 당해 고향에서 3년간 복상하였다. 39세에 홍문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이 되었다가 곧바로 사가독서賜讀講官에 임명되었다. 퇴계는 종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낙향을 생각하고 있다가 43세 되던 해의 10월에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 삼아 사가를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을사사화 후에도 병약을 구실 삼아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 46세 되던 해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토계陶溪의 동암東巖양진암養眞庵에서 독서에 전념하는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토계를 퇴계陶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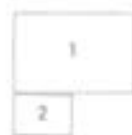
이후 조정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직이 제수되자 하는 수 없이 외직을 요청하여 48세에 단양군수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 온계溫溪 이해李滉(1496~1550)가 충청감사에 임명되자 스스로 청하여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풍기군수 재임 시절에는 전임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부흥한 선례를 따라 고려 말기의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安衡이 학문을 닦았던 순흥지역에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역編譯·서적書籍·학전學典 등을 하사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을 시켰다. 1년 후인 1551년 풍기군수를 사임하고 지금의 도산서원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서암寒栖庵 동북쪽 계천 위에 계상서당을 세우고 독서에만 전념하다가 1552년 52세 되던 해에 성균관대사성의 명을 받아 부임하였다. 이후 56세에 홍문관부제학, 58세에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3세 이후 관



1. 퇴계 이황 退溪 李滉 묘소

2. 퇴계 종택





1. 퇴계선생태실(退溪先生胎室)
2. 퇴계 이황 위패

직을 사퇴했거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일이 무려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 60세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칭하였으며,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평소 예(禮)를 중시했던 명종은 퇴계에게 출사(出仕)를 종용했는데 퇴계가 응하지 않자 화공을 도산으로 보내서 그 일대의 풍경을 그리게 한 다음 그림에 도산기(陶山記)와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하여 병풍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퇴계를 흠모했다고 한다. 이후 자헌대부(資憲大夫)·공조판서·대제학에 임명됐지만 그때마다 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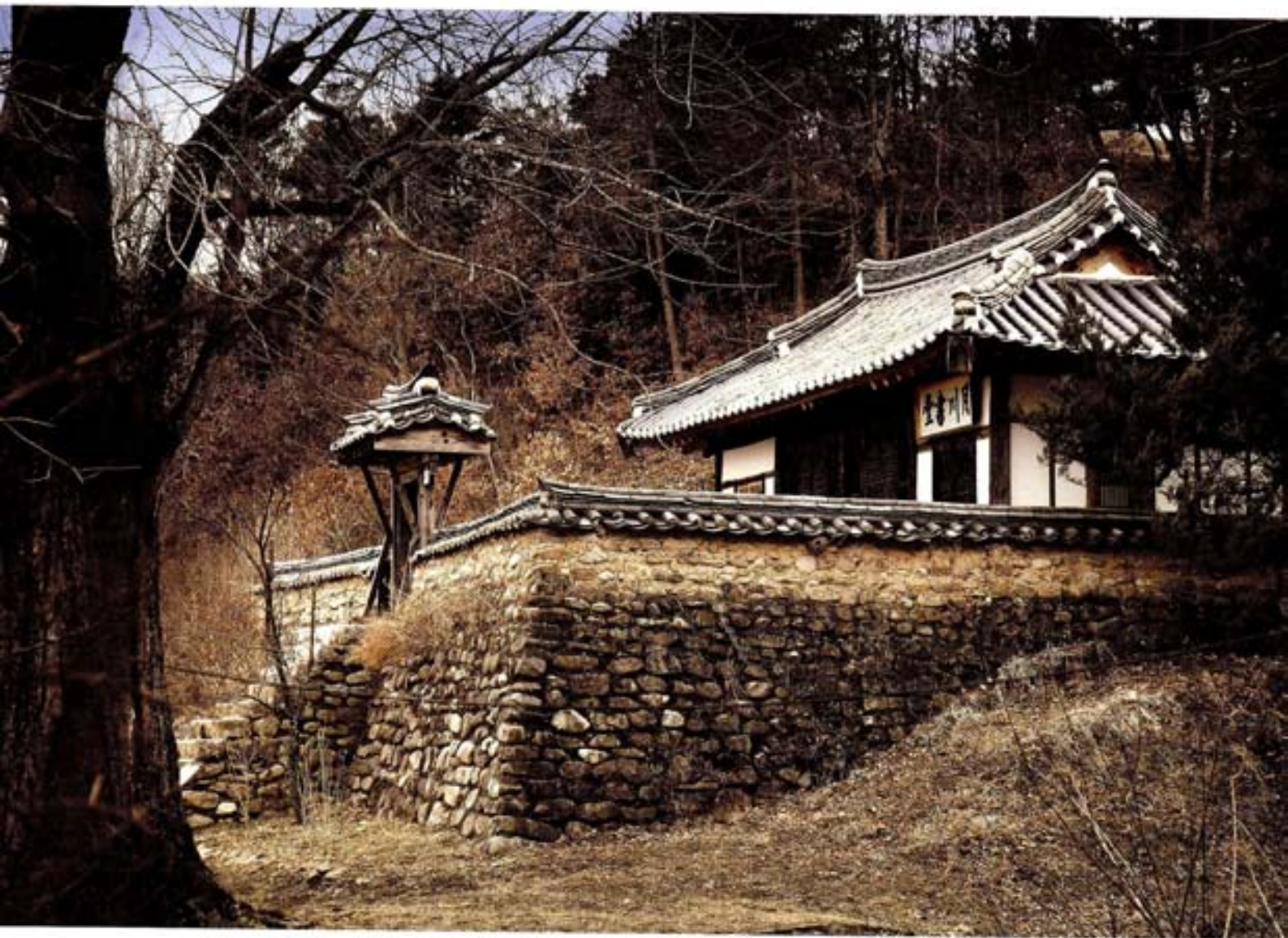
그러나 67세 되던 해엔 명나라 신계(新溪) 사절의 방문에 맞춰 조정으로부터 간절한 요청이 있자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명종이 갑자기 사망하고 선조가 즉위하여 부왕의 행장수 찬청당상경(行啓廳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됐으나 신병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68세 되던 해에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아서 선조에게 「무진육조소(戊辰六朝疏)」를 올렸고 선조는 이를 천고의 격언으로 삼아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 한다. 아울러 임금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심정으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고, 이듬해 69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70세가 되던 해인 1570년 11월 8일 아침 무렵, 평소 아끼던 대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키고, 일으켜 달라 하여 단정히 앉은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퇴계의 타계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김경언·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영사를 추증하여 장례를 영의정의 예(禮)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묘소에는 퇴계의 유계(遺骸)대로 자그마한 돌에 ‘퇴도만은전성이공지묘(退道萬恩全性伊公之墓)’라고 새긴 묘비를 세웠을 뿐이었다. 퇴계가 타계한 후 4년 만에 제자들이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낙성하고 도산서원의 사액을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상덕사에 위패를 모셨고, 11월에는 문순(文純)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610년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2) 월천 조목(月川 趙穆)

도산서원 상덕사의 종향위(從享位)로 모셔져 있는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황성(皇城)이고,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월천(月川)이다. 예안현 월천리에서 아버지 조대춘(趙大椿)과 어머니 안동권씨(安東權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별호가 ‘월천’이 된 것도 그가 나서 자란 곳일 뿐만 아니라 일생의 근거지였던 이곳의 지명을 취한 것이다.

월천은 5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여 12세에 사서삼경을 모두 섭렵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갖춘 것으로 전하며, 15세에 퇴계를 처음 찾아뵙고 학업을 청하였다. 1552년 29세 되던 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퇴계를 다시 찾아가서 경서와 성리학에 대해 질의하고 공부하였으며, 이후 과거의 꿈을 접고 부용산 아래서 위기지학(爲己之學)에만 힘을 쏟았다.



월천서당 月川書堂

과거를 거치지 않은 그에게 처음으로 벼슬이 내려진 것은 43세 때인 1566년(명종 21)이었다. 당시 사림의 관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사림 영수로서 신망이 두터웠던 퇴계에게 부름이 잇달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퇴계 문인에 대한 등용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조^{吏曹}의 천거로 공릉참봉이 제수되었고, 뒤이어 성균관의 천거로 집경전 참봉이 되었으나 사은 후 곧바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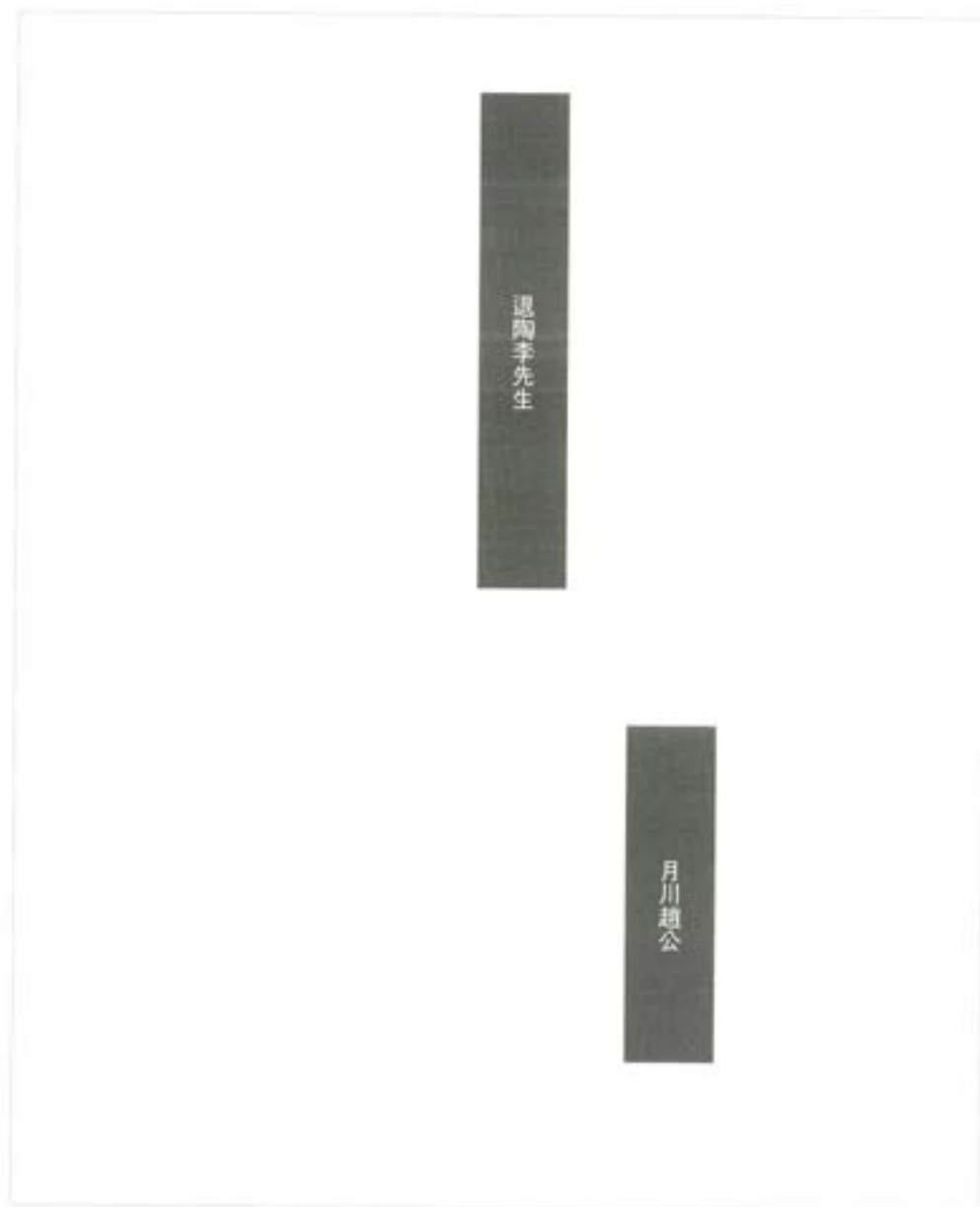
월천의 존재가 중앙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73년(선조 6)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가 함께 논의하여 이지함^{李之幹}·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김천일^{金千一} 등과 함께 당대의 은일파^{隱逸派}로서 학행이 뛰어난 인물로 천거되면서부터였다. 그는 다섯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으며 이로써 참상의 벼슬에 올랐다. 이후 81세 되던 해에 종2품인 가선대부 공조참판직을 받기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품계가 오르고 관직이 제수되었지만, 대개의 경우 이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벼슬살이를 한 것은 53세 때인 1576년(선조 9) 봉화현감으로 2년 남짓 부임한 것과, 65세 때

인 1588년(선조 21) 2년간 합천군수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퇴계가 타계하고 나서 도산서원을 건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강학활동을 벌여 퇴계의 학풍을 계승하고 확대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월천은 『퇴계문집』의 간행을 통해 적통 제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80세 이후 강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산서원에 머물렀으며, 그마저 할 수 없으면 매년 정초마다 상덕사를 배알하는 등 세상을 떠나기까지 퇴계를 숭모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스승을 기리는 사원^{사원}의 건립 및 봉안 등에서 항상 성의를 다하였던 그는 1606년 10월,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고, 1613년(광해군 5)에 도산서원 상덕사에 배향되었다.

도산서원 위차도(陶山書院位次圖)





2. 도산서원의 향사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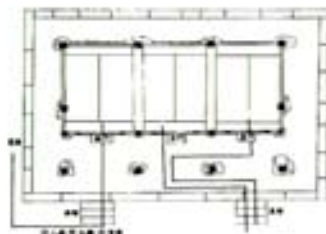
도산서원의 향사는 퇴계 이황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에서 매년 춘추^{春秋}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正日}에 거행된다. 봄에 봉행하는 것을 춘향^{春香}이라 하고, 가을에 봉행하는 것을 추향^{秋香}이라고 한다. 향사의 장소는 상덕사^{上德寺}로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다. 원위^{元慰}는 '퇴도 이선생^{退道李先生}'이고, 종향위^{終香位}는 선생의 제자인 '월천 조공^{月泉趙公}'이다.

원래 도산서원의 향사는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치러졌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모든이들에게 공개되었으며, 또 2009년 추향부터는 종전의 2박 3일로 봉행하던 향사 기간을 1박 2일로 단축하고, 심야에 치르던 것을 오전 11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전에는 향사를 거행할 때 서원 정문인 진도문^{進道門}의 출입은 복인^{服人}이나 예복^{禮服}을 갖추지 않으면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원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이 증가한 탓에 통제가 힘들게 되어 향사에 직접 참여하는 유생들만 예복을 갖추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또 복인의 경우에도 서쪽 헐문을 사용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서원의 묘우 ^{묘宇}인 상덕사나 강당인 전교당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동서로 갈라진 계단 가운데 서쪽계단은 존빈^{尊賓} 혹은 지비자^{知賓者}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 유생들은 동쪽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도록 정해져 있다. 존빈이란 나라에서 파견된 치재관^{執事官}이나 수령방백^{守令防伯} 등을 말하고 지비자는 고직^{高職} 관리인 또는 원노^{元老}를 일컫는다. 이처럼 신분이 극명하게 대치되는 이들에게 같은 서쪽계단을 사용하도록 해둔 까닭은 사용자의 임부 가운데 완급^{緩急}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비자가 향사 봉행에서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때 일반 유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동쪽계단보다는 서쪽계단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사당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이들이 동쪽계단으로 올라 기둥 밖을 따라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동쪽 문으로 나와서 기둥 안을 따라 중앙 기둥을 돌아 동쪽계단으로 내려오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초헌관과 축관이 축문을 땅에 붙는 망예^{望禮}를 거행할 경우에만 서쪽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온다.

09 직계존비속이나 가까운 인척이 사망하여 상복을 입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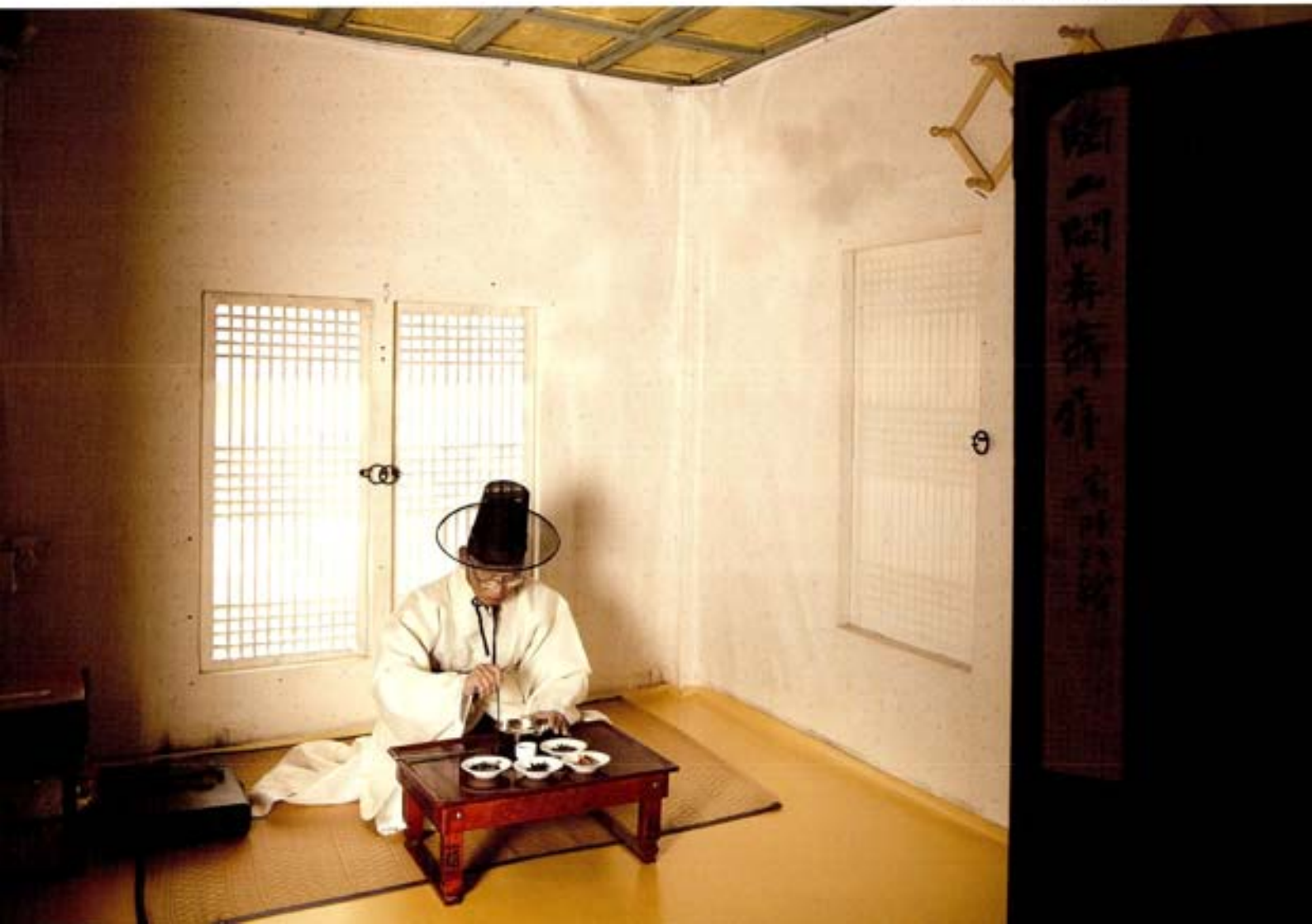
상덕사 명연출입문과 계단

2) 알묘례 謁廟禮

알묘례란 성균관·향교·서원·가묘 등에 모셔진 선현의 위패(혹은 신주)를 참배하는 의식을 말한다.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일반 내방객이 사당을 참배하는 일반알묘와 서원의 유사(別有司 3명, 齋有司 5명)가 매월 삭일(초하루)과 망일(보름)에 분향·참배하는 향알^{향교}과, 매년 정월 초 5일에 유사를 비롯한 유생들이 함께 알묘하는 정알^{정교}과, 또 춘추 향사 전날에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참배하는 정제일알묘례^{正제일謁廟禮} 등이 있다.

알묘례를 거행할 때는 관리인이 사당[尙德祠] 문을 열고 배석^{배례}하는 자리를 마련해두며, 그런 다음 향료와 향합을 사당 문 밖의 처마 끝에 내어 놓는다. 그리고 전교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예복을 미리 꺼내놓는다. 이어 알묘를 행할 사람은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리[草席]에 남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현관^현으로 참석한 상유사^{상유사}의 위패(정알알묘고^{正謁廟告})



(1) 일반알묘—祭典

알묘를 행할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고 남향으로 앉으면 관리인이 전교당 축대에 서서 “알묘 아뢰오”라고 외친다. 그러면 알묘자는 앉은 채로 읊궂을 하고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서 상덕사 뜰에 마련된 절하는 자리[拜席]로 간다. 다시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향분을 피우는 예[焚香禮]를 올리고, 밖으로 나와서 절하는 자리에서 절을 두 번 한다. 만약 알묘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창궂을 하여 절서 정연하게 알묘를 하도록 한다.

알묘례를 마치면 전교당으로 다시 와서 자리에 꿇어앉아 관리인이 “피좌 아뢰오”라고 외치면 앉은 채로 마주 보며 읊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원록[神恩錄]에 기록을 하고 예복을 벗어서 반납한다.

(2) 향알[香祭]

원래 유사(別有司 3명, 齋有司 5명)는 배월 삭일과 망일 전날이 되면 서원으로 들어와서 재계[齋戒]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의관을 정제하고 분향하는데, 이를 ‘삭망분향례[朔望分香禮]’라고 한다. 그러나 2009년 춘향부터는 삭일과 망일의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원으로 들어와서 오전 11시 무렵에 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규정은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사전 연습이나 이동시간 등의 문제로 대부분 전날 입재를 시행하고 있다.

당일 오전 10시 무렵, 유사들이 전교당의 준비된 자리에 남향으로 꿇어앉으면 관리인이 축대에서 “분향 아뢰오”라고 외친다. 앉은 채로 서로 읊을 하고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사당 뜰에 마련된 절하는 자리[拜席]에 잠시 섰다가 다시 손을 씻는 곳[盥洗位]으로 가서 손을 씻고 사당 중문 앞에 이른다. 유사 가운데 한 사람은 봉향[奉香]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봉로[奉爐]를 하여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향합과 향로를 받들어 위패 앞에 진설한다. 현관이 향상[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향을 세 번 피우고 일어나서 읊례를 하고 동문으로 나와서 중앙의 기둥을 돌아 내려와서 절하는 자리[拜席]에 이르러 절을 두 번 한다. 그런 다음 유사들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향상 앞에 서고 관리인이 위패를 안치한 독궂을 열면 읊례를 하고 몸을 잠시 굽힌[鞠躬] 다음 위패에 이상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본다. 종향위[宗香位]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그리고는 동문으로 나와서 중앙의 기둥을 돌아 계단을 내려온다. 예를 마치면 전교당으로 와서 자리에 꿇어앉아 관리인이 “피좌 아뢰오”라고 외치면 서로 마주보고 읊을 한다.

만약 삭망분향례를 거행할 때 상유사[上裕司]와 원장이 참석했으면 상유사가 현관을 맡는다. 또 재유사 가운데 한 명만 참석했을 경우에는 관리인과 함께 거행한다.



향악·香閣
향암



1. 전교당典教堂 좌장
2. 분향석香
3. 국공祠位





(3) 정알^{正알}

음력 정월 초5일에 행하는 의식이다. 예전에는 4일 무렵에 3임^{三임}, 곧 상유사(원장)·재유사(5명)·별유사(3명)를 비롯하여 일반 유생들이 서원으로 들어와서 5일 아침에 예를 행했으나 2009년 춘향부터는 음력 정월 초5일 오전 10시까지 예복을 갖춰 입고 서원으로 들어와서 간단히 재계하고는 오전 11시 무렵 거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과 달리 지금도 여전히 전날 입재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인이 사당문을 열고 향로와 향합을 사당의 중문 앞 축대 끝에 두고 절하는 자리[拜席]를 마련한 다음 전교당 틀로 와서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유사와 유생들을 향해 “정음례^{正音禮} 아뢰오”라고 세 번 외치면 서로 읊을 한다. 재유사가 조사^{趙師}를 지명하면 조사가 재유사 앞으로 가서 읊을 하고, 이에 재유사는 다시 집례^{集禮}를 지명한다. 그러면 조사가 집례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하면 이번에는 집례가 알지^{吳止}를 지명한다. 조사는 알자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하고 자리로 되돌아온다. 집례가 사당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흠가를 읽기 시작하면, 유사와 모든 유생들은 동쪽 계단을 통해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를 거행한다.

예를 마치고 전교당으로 돌아와서 동서로 줄을 지어 서있으면 관리인이 축대에서 “과좌 아뢰오”라고 외친다. 이에 서로 읊^은을 하고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봉심^{奉審}¹⁰을 하고 나온다.



1. 입재^{入齋}
2. 정음례^{正音禮}
3. 알^吳을 위해 사당으로 올라가는 유사와 유생
4. 상상향^{上上香}

¹⁰ 알^吳을 마치고 다시 사당에 들어가서 관리인이 계독을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동가정으로 읊례하고 살펴보는 것을 알함.





향사예지







3) 향사례 享祀禮

도산서원 향사는 봄과 가을의 중정일(中丁日)에 행한다. 만약 중정일이 국기일(國忌日)에 해당되거나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에는 하정일(下丁日)에 행하고, 이때에도 적합한 날이 없으면 해일(亥日)로 한다.

향사를 봉행하기 전 상유사(원장)와 하유사(肅有司와 別有司) 등은 전교당에 모여서 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 및 축관과 집례(執禮)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낼 망기를 작성한다. 초헌관은 원장이 맡기 때문에 별도의 망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헌관 및 축관과 집례에게 유고가 있게 되면 입재일 이전에 사유를 적은 단자(單子)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2011년의 춘향 때는 3월 5일(음 2. 1)에 실시했다. 그 외의 집사들의 경우에는 망기가 아니라 회문(回文·임종시 조형 권지을) 써서 보낸다.

원래 상유사와 하유사는 향사를 거행하기 3일전에 입재하고, 헌관 및 축관·집례·유생들은 2일전에 입재했지만, 2009년 춘향부터는 향사를 오전 11시에 봉행하게 됨에 따라 모든 집사와 유생들은 향사를 치르기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서원으로 들어오도록 변경되었다. 아울러 예전에는 정재일(正祭日) 이른 아침에 알묘례를 행했으나 2009년 춘향부터는 오전 11시 무렵으로 바뀌었다.

(1) 차제 差制

차제(差制)란 제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선정 결과는 망기(望記)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된다. 망기는 단체나 조직의 중요한 직책 또는 큰 행사의 중요한 역할에 선임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통보서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을 비롯한 종묘·사직·성균관은 물론이고 지방의 향교와 서원, 문중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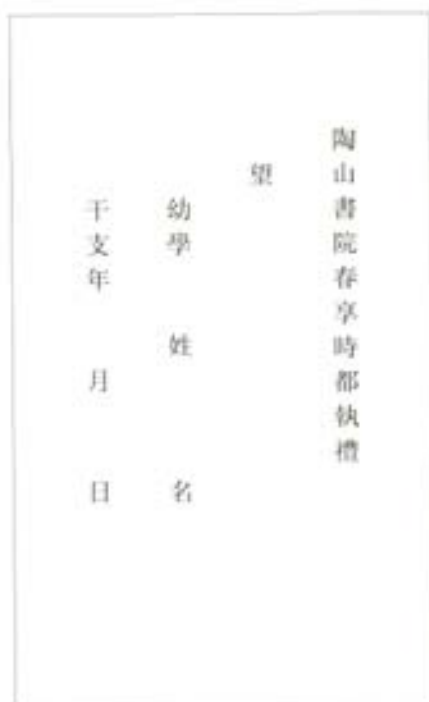
원래 도산서원에서는 지역 내(당시 예안군의 각 면)에서 추천받은 명단을 각각 8부 작성하여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의 이름에 점을 각각 표시해두면 유사가 명단을 건네받아 유원록(遊原錄)에 기록해두었다. 선정 시기는 3년(子, 午, 卯, 酉年)에 한 번씩 정알(正朔)이나 봄가을 향사 때이고, 대략 15~20명 내외를 선정한다.

오늘날 도산서원 향사의 첫 준비과정은 향사가 드는 달(음 2· 8) 초하루(朔日)에 상유사(원장)와 하유사(肅有司와 別有司)가 전교당에 모여서 헌관 3명(아헌관·종헌관·분헌관) 및 축관과 집례(執禮)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낼 망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초헌관의 경우에는 원장[上有司]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망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이 유고로 인해 향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도집례(都執禮)를 선출하여 망기를 작성하고 그 외 집사들에게는 회문(回文)을 써서 보낸다.

2011년 춘향의 경우에는 3월 5일(음 2. 1)에 차제를 거행했는데, 원장이 원거리에 계신 까닭에 작년의 도집례와 하유사들이 대신 참석하였다. 아울러 춘향에도 원장의 유고로 인해 별도의 도집

례를 선정했는데, 이로써 도집례·아현관·종현관·분현관·축관·집례 등 총 6명에 대한 망기가 작성되었다. 망기는 서식에 입각한 봉투에 먼저 넣고 이를 다시 우편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였다.

만약 망기를 받은 사람이 집안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입재 날 이전까지 단자(單子: 망기 봉장다름지)를 반드시 보내서 수행할 수 없음을 밝히야 하며, 이 경우 전임록(前任錄)에는 미행공(未行公)으로 기재해둔다.



망기서식(望記書式)



망기

망기를 작성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기 용지는 헌지 전지로 하되 육절(肉切)로 접어서 사용한다.
 - '망기' 자는 서원 명칭보다 한자 一 두 아래에 오도록 쓰되 '망' 자 밑에는 '원' 자를 쓰지 않고, '말는다'라는 뜻을 가진 '임' 자를 쓴다.
 - 유학(幼學)의 '유' 자와 간지는 망자보다 한 글자 아래에 쓴다.
 - '유' 자의 끝부분 '역' 자도 위로 높이 올라가는 부분을 잘라서 '도' 자로 쓰고, '학' 자의 속 부분을 '생지시효' (生地時效)라고 해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효' 자를 '지' 자로 바꾸어 쓴다. 또 현관의 망기에 적는 '헌' 자 역시 오른쪽 부분의 '견' 자를 '대' 자로 쓴다.
 - 원인(元印)은 월과 날짜의 가운데 찍는다. 인육(印肉)은 묵색(墨色)으로 하고, 모로 세워서 날인(捺印)한다.
- ※ 붉은 색은 신성시 하여 임금의 어새(御璽)나 신씨에게만 사용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붉은 색을 보편적





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는 아직도 묵색으로 날인한다. 모로 찍는 것은 겸손의 뜻을 나타낸다.

- 작성된 망기는 종책으로 육장을 접고 다시 횡책으로 삼장을 접어 '망' 자가 뒤집어 비치도록 하여 전면(陶山書院○○○望記)라고 쓰고, 뒷면에는 '謹封'이라고 쓴 봉투에 넣고, 다시 전면(망자의 주소와 성명을 쓰고, 뒷면에 도산서원이라고 쓴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이때 망자의 이름 다음에 '덕^덕 입납^{入納}'이라고 쓴다.

한편 헌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축관·집례 이외의 집사들에게는 회문을 작성하여 보낸다.

陶山書院回文									
望									
姓 名									
右文爲 本院享禮在今○月○日僉須齋齋終									
期○月○日入齋幸甚									
齋有司			○	○	○				
			○	○	○				
			○	○	○				
干支			月	日					

회문서식回文書式

망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이지만, 상^喪을 당했거나 신병 등의 이유로 참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밝힌둔 사직단지^{辭職單子}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자후구

仰濟 會尊鑑伏以生之魯劣猥蒙重任敢不趨走而適值身憂未由遂 誠伏望聖賜改過以救大事以安私
分千萬幸甚

우러러 어리 어른들(서원에 관계한)이 살려주시기를 업드려 생각건대 어리석고 졸렬한 사람으로서 외람
되이 은혜를 입어 총대한 책임을 맡았으나 감히 달려가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몸의 근색신병을 이
유로 성실히 행공(行公)을 못하니, 업드려 바라옵건대 서둘러 바꾸시어 큰일에 돈독히 해 주심은 사사로운
신분으로 언심이 되고 다행한 일아겠습니다.

상음(相音)





차제



1. 재관 추천 명단 확인
2. 평가표 작성





敬啟

者

子無忌

例



차재



1. 망기 작성
2. 망기 확인



원연(원) 남인



망기발송





(2) 재계례

재계례란 향사를 거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재향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계에는 산재(散齋)와 치재(治齋)가 있는데, 산재는 치재의 약식(略式)으로, 행동 등으로 근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욕재계하고 조상(祖宗)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반면 치재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오직 재향에 관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사(上祀)에 속하는 종묘와 사직의 오향대제(五享大祭)에는 산재 4일과 치재 3일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사(中祀)에 해당하는 문묘 등의 제사에는 산재 3일과 치재 2일을 행한다는 기록이 있다. 서원향사는 소사(小祀)에 속하는데, 산재 2일과 치재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이유로 도산서원에서 예전에는 향사 봉행 사흘 전에 입재를 실시했으나 2009년 춘향부터 오전 11시에 향사를 치르게 됨에 따라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향사를 치르기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서원으로 들어와서 재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1년 춘향의 경우에는 3월 22일에 입재하여 3월 23일(음 2. 19)에 향사를 봉행하였다.

3월 22일, 오전 9시 무렵부터 헌관 이하 집사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의관을 정제하지 않으면 도산서원의 출입문인 전도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사전에 도포와 갓 등을 착용한 차림이었다. 4명의 헌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은 전교당에 딸린 방(閑存齋, 원장반)으로 들어가고, 재유사·별유사·축관·집례는 동재(東齋·講義齋)로, 그 외 나머지 집사들은 서재(西齋·學禮齋)에 머물면서 1박 2일에 걸친 향사를 치르게 된다.

처소의 구분은 이들 제관들이 맡은 역할의 중요도에 근거한 것으로, 전교당·동재·서재의 순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 이는 향사가 봉행되는 기간 동안 철저히 준수되는데, 아를테면 식사 등을 운반할 때도 전교당·동재·서재의 순서로 한다든지,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났을 때 전교당으로 건너와서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 등이다. 또 전교당의 제관들은 외상(獨床)을 받는 반면, 동재와 서재의 경우 축관과 집례(集禮)만이 외상을 받고 나머지 제관들은 겹상에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분정례 등과 같이 모든 제관들이 모이는 전교당의 대청에서도 4명의 헌관은 상위에 해당하는 동쪽에 서향으로 앉고, 나머지 집사들은 남북으로 마주보며 앉는다.

(3) 정재일 알묘례 正葬日謁廟禮

예전에는 망기와 회분을 전해 받은 현관 이하의 집사들은 향사 사흘 전에 입재^{入在}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향사가 끝날 때까지 서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내에 머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의관을 정제한 후 사당으로 나아가 알묘례를 올렸다. 그러나 2009년의 춘향부터는 향사 봉행의 하루 전에 입재하여 알묘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1년 춘향의 경우에는 3월 22일에 알묘례를 행하고 이튿날 3월 23일에 향사를 거행하였다.



1. 입재
2. 사당으로 올라가는 현관과 집사
3.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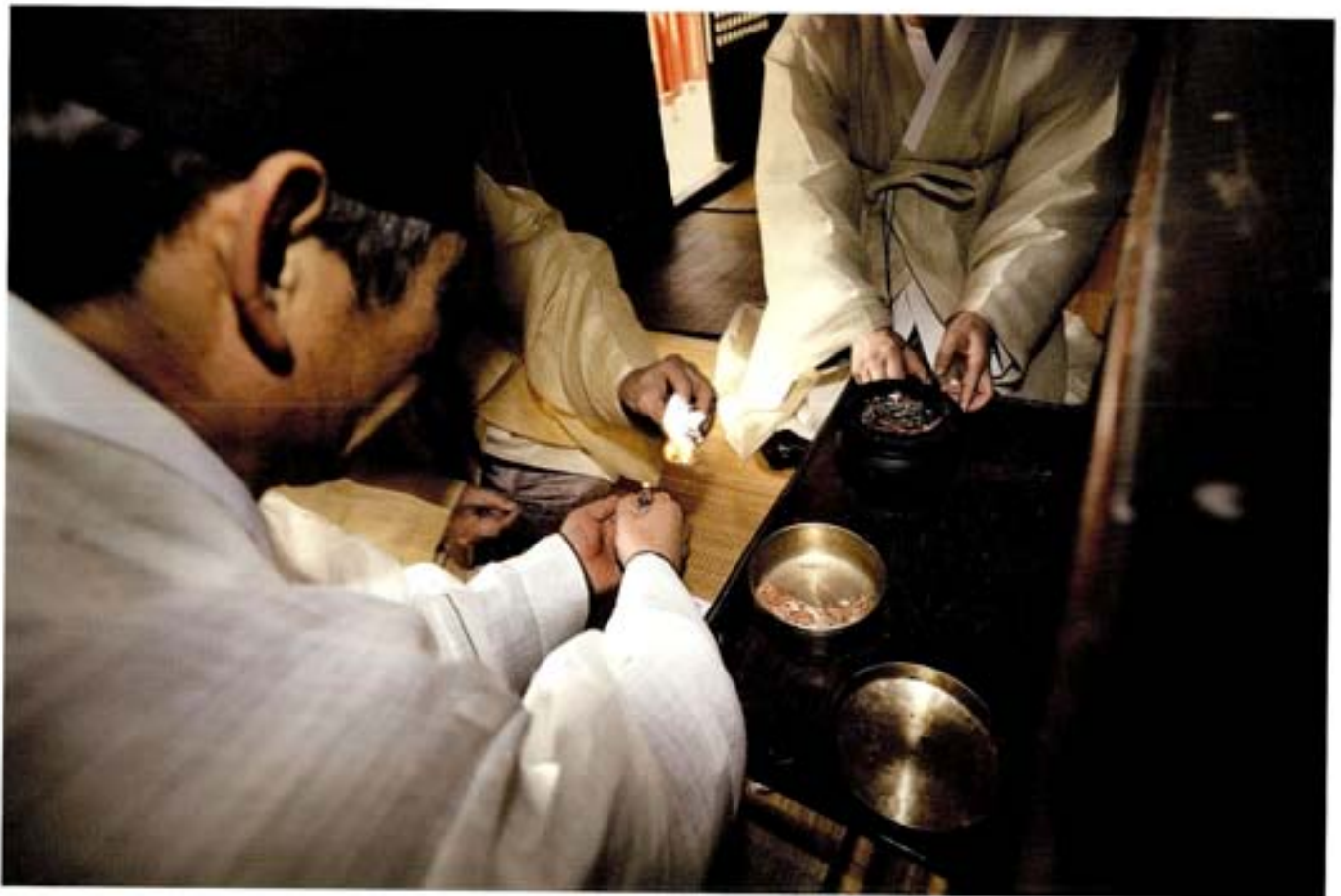




향례정재일알묘례절목享禮正齊日諱廟禮節目

○祝及諸生 ○東西 序立於庭 ○齋有司 或年高者 薦出曹司 ○祝薦出執禮 ○曹司 進執禮前 相揖
 ○執禮 差出 謁者 ○曹司 進謁者前 相揖 ○差出奉香奉爐 ○祝及執禮 東西 相向立 ○諸生 次次序
 立 ○相揖 ○因行 謁廟禮 ○執禮 執笏 先入 廟庭 ○唱笏 ○禮畢後 行堂揖禮 ○獻官 以下 以次出
 축관과 유생들이 동서로 나누어 전교당 뜰에 줄지어 서면 재유사 또는 나이가 많은 분이 조사^{曹司}를 추천
 한다. 축관이 집례를 추천하면 조사가 집례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한다. 집례가 알자^{謁者}를 천거하면 조사
 가 알자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한다. 이어 집례가 봉향과 봉로를 추천한다. 축관과 집례가 동서로 마주보
 고 서며, 유생들이 차례로 줄지어 서서 마주보고 서로 읊을 한다. 그리고는 알묘례를 행한다. 먼저 집례가
 홀기를 들고 사당의 뜰로 들어가서 홀기를 읽는다. 홀기 순서대로 알묘례를 마치면 서로 읊을 행하고 헌관
 이하 차례로 사당 밖으로 나간다.

원래 알묘례는 홀기에 근거하여 새벽 6시 무렵에 진행되는데, 2011년 춘향에서는 향사 전날인
 3월 22일 오전 11시에 거행되었다.





1. 삼성향
2. 재배



(4) 척기례(澈器禮)

알묘례가 끝난 후 재유사들이 전사청으로 가서 제기의 숫자를 맞춰보고, 제대로 씻었는지를 살펴보는 척기의식(澈器儀式)을 거행한다. 제기는 보(寶)·괘(掛)·변(邊)·사두(沙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와 괘는 벼(稻)와 기장(黍)을 담는 그릇이고, 변은 대나무로 만든 굽이 있는 제기로 과일이나 포 등과 같은 마른 재물을 담고, 두는 굽이 있는 목기(木器)로 김치 또는 식혜 등의 젖은 재물을 담을 때 사용한다. 그 외 술항아리와 술잔, 숯대 등이 사용된다.

2011년의 춘향 때는 관리인이 향사 봉행 전날인 3월 22일 이른 아침에 전사청에 보관되어 있던 제기를 꺼내 깨끗하게 씻고 닦아서 고직사(庫直舍) 처마 밑에 나란히 배열해두었다. 그러자 알묘례를 끝낸 재유사들이 고직사로 가서 제기의 종류와 숫자, 그리고 상태 등을 점검하는 척기의식을 거행했다.



1. 제기유물
2. 제기상태 확인





(5) 분정례分庭禮

분정례分庭禮란 향사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제관을 선출하는 의식이다. 이를 위해 알묘례를 마친 헌관 이하 모든 유생들은 전교당으로 이동하여 이미 천거된 4명의 헌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 축관, 집례 이외의 나머지 집사를 선정하는데, 2011년의 춘향 때에는 알묘례를 끝낸 3월 22일 오전 11시 40분 무렵에 거행되었다.

전교당 대청에 4명의 헌관이 중앙에 자리하고 나머지 유생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선다. 관리인이 전교당 축대에서 “개좌^{開座} 아뢰오”라고 세 번 외치면 서로 읊을 하는 것으로 분정례가 시작된다. 전교당 벽에 걸려 있는 분정판을 내려서 작년 추향 때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떼고 미리 준비해 둔 한지를 붙인다. 그런 다음 시도기^{時道記}에 기록된 유생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각 역할에 적합한 유생을 천거하여 분정판에 기록한다.

그러나 도산서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원에서도 역할 분정은 사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산서원 역시 3월 5일(음 2. 1) 삭망분향례를 거행할 때 차제^{차제}를 열어 헌관 이하 모든 집사를 선정하여 방기와 회문을 각각 작성해서 이미 보낸 상태였다. 따라서 분정례에서는 이미 선정된 헌관 이하 집사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분정판에 옮겨 적을 뿐이다. 완성된 분정판은 다시 벽에 걸어둔다.

분정례가 끝나면 축관이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사당으로 가서 축관을 가지고 나온다. 이때 축관은 반드시 사당 증문을 통해서 모시며, 축관을 받은 축관이 전교당에 오르면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축관을 향해 읊^읊을 한다. 그리고는 축문을 작성하여 축판에 붙이고 축관이 이를 받들면 다시 축판을 향해서 읊을 하고 사당의 위례 자리에 모신다. 축문은 원위^{元位}와 종향위^{終向位}에 대해 각각 작성하지 않고 두 위를 합쳐서 하나만 마련하는데, 2011년 춘향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分獻官	祝	贊者
文在球	趙東輝	李潤鎭	金大中	李殷夏	權榮基
謁者	贊引	司尊	奉香	奉饌	奉爵
李元雨	金壽源 李炫 李源五	趙雄熙 權五鎬	李漢斗 李東一	柳漢郁 李昌熙	周萬植 千成龍
奠爵					
金鎬潤 李桂萬					

2011년 춘향分庭禮



분청회分定禮







분정례 순서



- 1.2. 분정관 작성
3. 분정 확인
4. 분정관



2011년 춘향^{春亨} 축문

신묘 2월 19일에 후학 문재구는 감히 선사 되도 이선생께 밝게 고합니다. 업드려 생각하건대 선생께서는 공자와 맹자의 마음을 전해 얻으셨고, 도학은 정호와정이 그리고 주희로부터 이어받으시어 대동에 집대성하여 유학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가 재물로 바치는 사생^{弟子}과 기장과 맑은 피와 맑은 술 여러 가지를 진설하여 밝은 정성으로 드리면서 월천 조공으로써 함께 드시게 하오니 부디 용량하소서.

참고로 이 축문은 상덕사에 퇴계 이황과 함께 배향되어 있는 월천^{月天} 조목^{趙木}이 지었다. 다만 ‘월천^{月天} 조공^{趙公} 종향^{宗向}’이라는 여섯 글자는 월천 선생을 상덕사에 종향한 뒤 추가된 것이다.



죽문회 작성





분정례 分定禮



1. 축문 작성
2. 축문 작성을 지켜보는 유생들





饗

從享 尚

先師退陶李先生伏以心傳孔孟道紹
 沿集成大東斯文準極謹以永牲案
 盛清的庶品式陳明薦以月川趙公

敢昭告于

維歲次辛卯二月己未朔十九日丁丑
 後學 文在球

분정례 分定禮



1. 작성된 축문은 사당에 모신다.
2. 축문



1. 분정례 이후 점심 식사
2. 점심 상차림



(6) 생간품 生間品

분정례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향사에 사용할 제수^{進手}를 검사하는 의식을 치른다. 이를 생간품^{生間品}이라고 한다. 2011년 춘향에는 오후 3시 무렵에 거행되었다. 관리인이 “개좌 아뢰오”라고 외치면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전교당 계단 아래에 동시에 마주하여 서고, 재유사는 시시^{時時}에게 고직사에 준비된 제수를 진도문 밖으로 옮기도록 지시한다.

그런 다음 시생^{時生}과 재수가 진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는데 쌀과 기장 등의 제수는 한지로 덮어 지게에 짊어지고, 역시 한지로 덮은 시생은 운반용 가마에 실어 두 사람이 맞들고 온다. 이때 관리인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제수와 시생, 그리고 재유사들이 뒤를 따른다.

이들 행렬이 전교당 뜰로 들어서면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제수와 시생을 향해 읊을 한다. 시생은 머리를 북향으로 하여 뜰 가운데에 내려놓고 다른 제수는 전교당을 우측으로 돌아 전사창에 있는 상 위에 올려놓는다. 재유사는 시생 앞으로 와서 서쪽을 향해 허리를 굽혀 “충^忠로 삼이 했습니까?”이라고 하면, 상유사(원장)는 시생 앞에 서서 남쪽을 향해 서서 “돌^忠로 삼이 했다”이라고 답한다. 이어 재유사가 북쪽을 향해 “충?”이라고 하면, 상유사는 서쪽을 향해 “돌!”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재유사가 동쪽을 향해 “충?”이라고 물으면, 상유사는 북쪽을 향해 “돌!”이라고 답한다. 이로써 시생에 대한 검사가 끝난 셈이다. 2011년 춘향 때는 상유사인 원장의 유고로 도침례^{道針禮}가 행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상유사가 “돌!”이라고 답하지 않으면 제수로서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제수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충과 돌로 이루어지는 문답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충돌 행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수 검사가 끝나면 읊을 한 다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원래는 생돼지를 메고 들어와서 간침례^{干針禮}를 행한 다음 고직사 옆에서 도축하여 제수를 장만했고 돼지 내장 등의 부산물은 야화(밤참)에 사용했다. 그러나 도축법 위배 및 비위생적 처리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법정도축장에서 장만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정육점에 부탁하여 반으로 토막 낸 냉동돼지를 구입한다. 또 야화에 이용하던 돼지 내장은 시장에서 구입하여 장만한다. 이처럼 비록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장만한 돼지의 머리 부분은 원위^{元位}인 퇴계 이황에게 올리고, 꼬리 부분은 종향위 ^{종향위}인 월천 조목에게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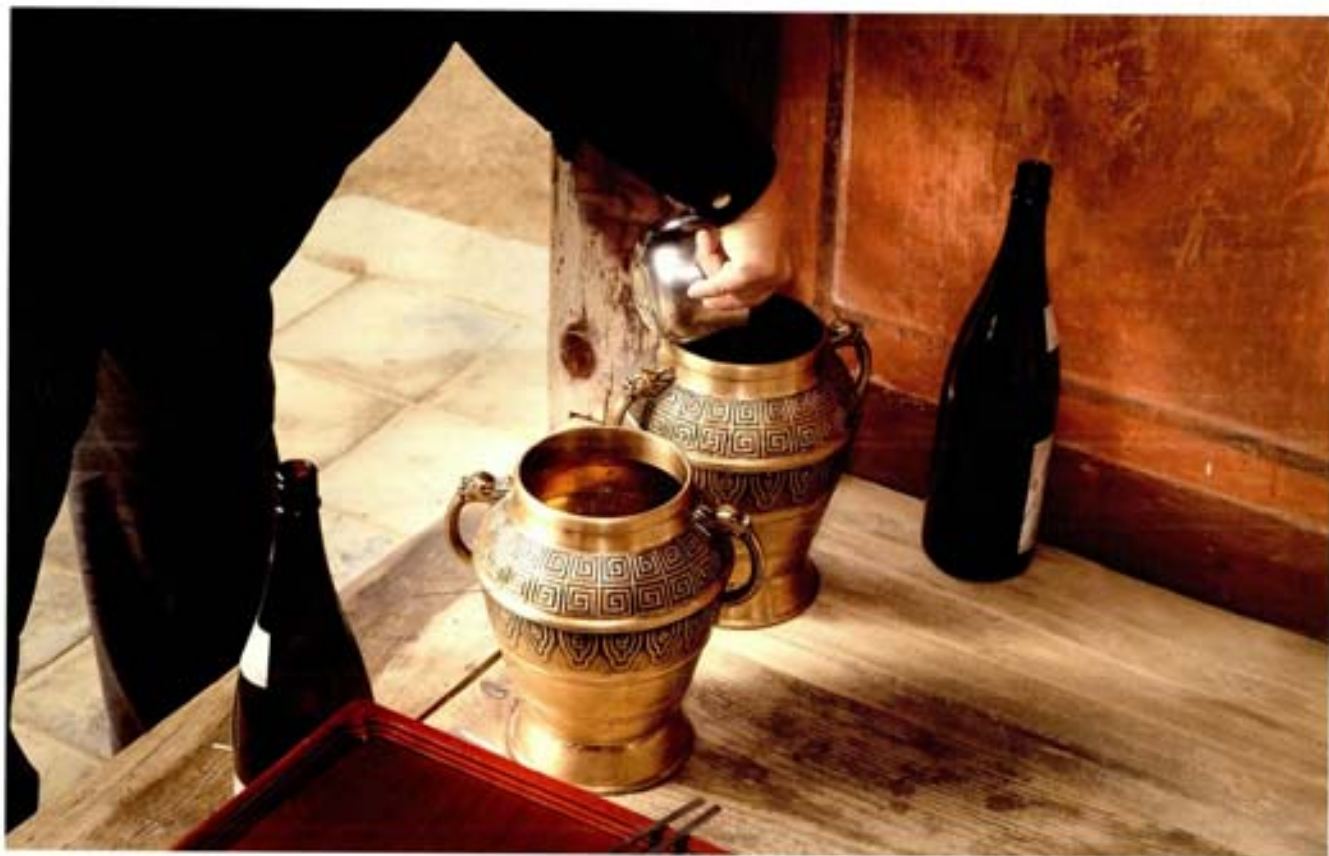


생간품 牲干品



1. 사생(祭牲)은 진도문(進道門)을 통해 들인다.
2. 간품례(干品禮)





1. 제주^{제주} 검사
2. 두랑^{두랑} 계산

(7) 봉준^{봉준}

생간쯤을 마치면 재유사들은 전사청으로 가서 제주^{제주}를 검사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관리인이 병에 든 술(청주)을 향아리[檜]로 옮겨 담는데, 원위의 향아리에는 5두^두를 담고 종향위에는 3두를 담는다. 전사청 대청에 앉아있는 재유사들 앞에서 관리인은 그릇에 술을 따라 향아리에 붓는데, 이때 “한 말!”, “두 말!”, “서 말!”이라고 외치면서 두랑^{두랑}을 계산한다. 두 개의 향아리에 각각 술을 모두 담으면 관리인이 재유사들에게 각각 술을 따라서 건네주어 맛과 상태를 검사한다. 절차를 모두 마치면 향아리 입구를 덮어놓은 한지에 원위의 경우에는 ‘상!’이라고 쓰고, 종향위에는 ‘하!’라고 써서 봉해둔다. 이런 식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저녁식사를 할 때까지 처소에서 휴식한다.



제주 검사









[8] 석미^{石米}

석미^{石米}란 제사에 쓸 쌀과 기장을 씻는 의식이다.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대략 7시 무렵이 되면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전교당의 뜰에 동서로 마주 서서 석미례를 거행한다. 재유사들이 재수가 보관되어 있는 전사청으로 가면, 기다리고 있던 시사^{時舍} 2명이 쌀과 기장이 담긴 함지를 각각 들고 전교당의 뜰로 향한다. 이때 관리인은 빗자루로 길을 쓸면서 선두에 서고 재유사들은 뒤를 따른다. 전교당 뜰에 서있는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이들 행렬이 지나가면 읊을 한다. 그리고는 진도문 밖으로 나와 열정^{烈庭} 옆의 수도에서 손을 넣지 않고 함지에 물을 받아서 아홉 번을 일어 씻는다. 쌀과 기장을 손으로 일지 않고 물로만 행구는 까닭은 정갈하고 신성한 재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시사는 쌀을 씻을 때마다 뒤쪽에 서서 지켜보는 재유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요!”, “들이요!”, “아홉이요!”라면서 씻는 횟수를 큰 소리로 외친다. 한편 안동댐이 건



1. 석미례 (石米禮)
23 쌀과 기장을 아홉 번 행군다.

설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강 가운데 정박하여 석미례를 거행하였다.
쌀 씻기가 끝나면 시사들이 함지를 들고 전교당 뜰을 지나가는데, 이때 기다리고 있던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제물이 지나가면 읊을 한다. 그런 다음 시사와 재유사는 동쪽 계단을 올라 전교당 오른쪽으로 돌아 전사청으로 가서 씻은 쌀과 기장을 보관해둔다. 재유사들이 전교당 뜰의 원래 위치로 되돌아보면 관리인이 “파좌 아뢰오”라고 새 번 외침으로써 의식이 마무리된다. 헌관과 축관, 집례는 처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집사들은 습례⁷⁸를 거행한다.

(9) 습례習禮

습례習禮란 향사를 거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절이나 절차 및 순서 등을 미리 익혀두는 것으로 미연에 실수를 방지하고 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실시된다. 습례의 지도는 향사 경험이 풍부한 구권유사가 담당한다.

2011년 춘향의 습례는 밤 8시 무렵 집사들의 처소인 서재西齋弘齋에서 행해졌다. 습례는 서원 내 각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문을 드나드는 방법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규칙 등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향사 흥기가 적힌 인쇄물을 배부하여 순서에 따라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례 흥기는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의례 경험이 풍부하지 않거나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사전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으시오(꿇어앉다)'라는 지시는 흥기에 '궤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교식 의례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는 좀처럼 소통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또 흥기에는 행위에 대한 간략한 지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단과 문을 통과해야 하고, 또 현관의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습례를 통해서 익혀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례를 봉행할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동쪽 계단으로 오르도록 되어있음에도 서쪽을 이용한다거나 등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8시에 시작된 습례는 밤 9시가 넘어서 마무리되었다. 그런 다음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야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른바 '밤참'이다. 원래는 돼지를 서원의 고적사 옆에서 도축하여 내장 등의 부산물이 야화에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육점에서 미리 손질된 돼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뀐 탓에 야화를 위한 돼지 내장을 별도로 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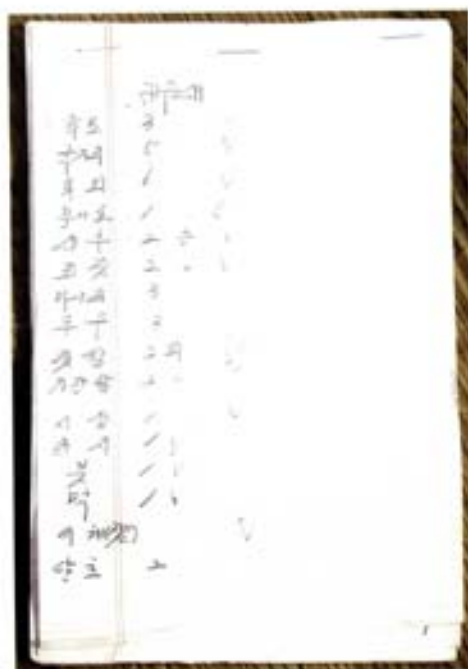
야화

(10) 진설陳設

제물은 흥기에 적혀 있는 물품에 근거하여 준비한다. 2011년 춘향 때는 향사 봉행 이틀 전인 3월 21일 오전 11시 무렵 도포를 차려입은 재유사와 별유사, 그리고 관리인 내외가 안동시내 신시장(재래시장) 및 마트 등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제수를 구입할 때는 물건 값을 흥정하지 않고 가장 싼선하고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마다 단같이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가게주인들이 제수에 적합한 물건을 골라서 제공한다. 아울러 제물 외의 제수용품은 주로 마트에서 구입했는데, 도포를 입은 유사들이 카트를 밀고 가는 모습에서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제수 물목(2011년 춘후)

어해^{魚蟹}: 멸치 찢갈
 녹해^{魚蟹}: 쇠고기 육회
 서괘^{魚蟹}: 기장벌
 도보^{魚蟹}: 명살
 어수^{魚蟹}: 문어포
 녹무^{魚蟹}: 쇠고기 육포
 청지^{魚蟹}: 무
 구지^{魚蟹}: 미나리
 건조^{魚蟹}: 말린 대추
 백자^{魚蟹}: 잣
 시생^{魚蟹}: 돼지
 흑^{魚蟹}: 양초
 향^{魚蟹}: 단향^{魚蟹}
 채주^{魚蟹}: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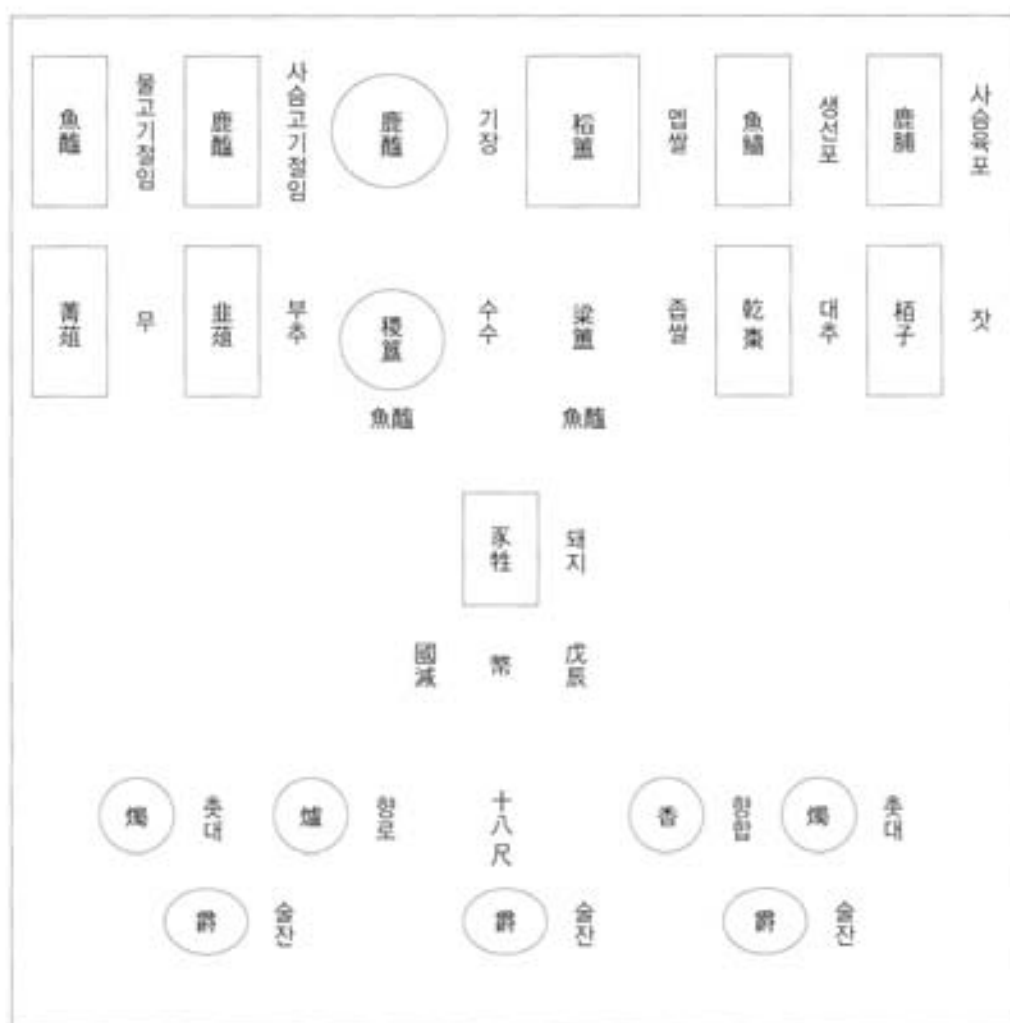


제수 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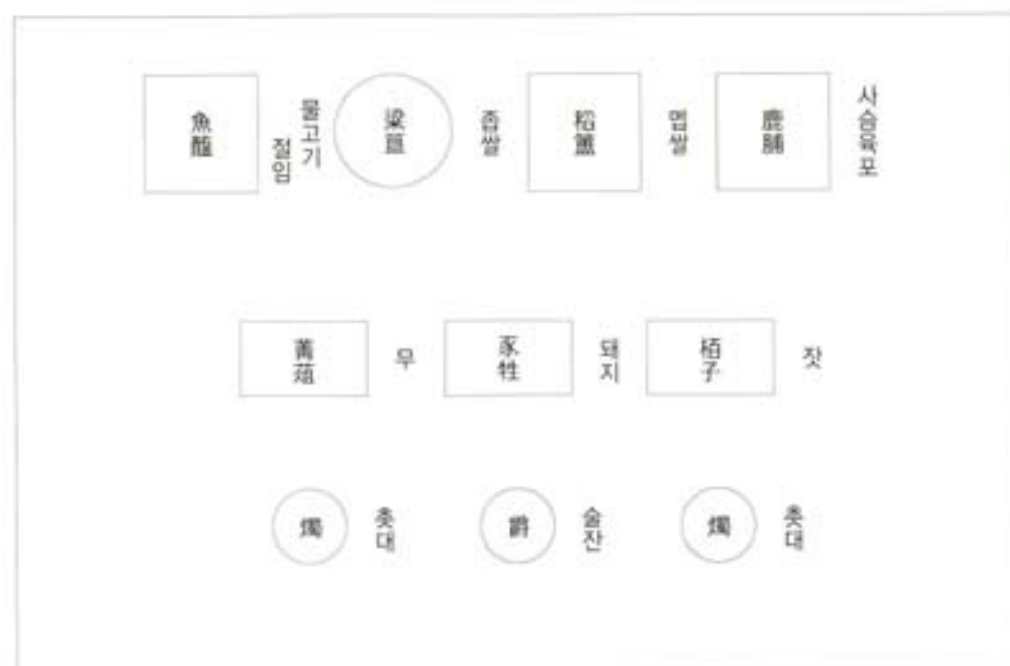
좌측의 제수 물목은 진설도에 근거한 것이고, 우측은 이날 실제로 구입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돼지는 이날 구입하지 않고 이튿날인 3월 22일 예약해둔 청육점에서 별도로 운반해왔다. 그리고 녹해^{魚蟹}와 녹포^{魚蟹}는 사슴고기로 마련해야 되지만, 오늘날에는 구하기가 힘들어 쇠고기로 바뀌었다. 또 구지^{魚蟹}란 원래 부추를 의미했으나 이날은 미나리를 구입했으며, 어수^{魚蟹}로는 문어포를 마련했다.

이렇게 구입한 제물은 3월 22일 저녁 석미례가 끝난 후 관리인이 장만하는데, 잣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깨끗이 씻어서 올리고, 무는 껍질을 벗겨 작게 토막낸다. 장만이 되면 관리인이 원위^{上位}와 종향위^位 앞에 미리 차려둔다. 이후 습례가 마칠 무렵 재유사들이 진설도를 들고 와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설한다.

원위(元位／退陶李先生)진설도



중향위(從享位) 月川趙公(趙公)진설도





재수 구입



제수는 하루 전에 준비한다.

(11) 향사례 享祀禮

원래 향사례는 축시 3時, 오전 1시~3시에 거행되었으나, 2009년 춘향부터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 2011년 3월 23일(음 2. 19) 춘향 역시 11시 무렵에 거행되었다. 오전 6시 30분에 재유사들이 전교당의 한존재(閑存齋-한오방)로 가서 도집례와 헌관들에게 아침문안을 드리고, 7시 30분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9시 무렵에는 재유사들이 상덕사로 가서 전날 밤에 미리 해둔 제물진설을 확인하고 처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오전 10시경 도집례와 헌관들은 전교당 대청에서 관복을 입고 사모(紗帽)를 쓰고 목화를 신고 손에는 홀(笏)을 들고 동쪽에서 서향을 하고 서 있다. 나머지 집사들 역시 처소에서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고 전교당 뜰로 나와서 동서로 마주보고 서서 기다린다.

오전 11시 무렵 관리인이 전교당 축대에서 “개좌 아뢰오”라고 외치면 뜰에 서있던 집사들이 서로 읊(誦)을 하는 것으로 향사례가 시작된다. 이어 찬자(贊者)가 앞으로 나와 읊을 하고 홀기를 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절을 하고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서서 창홀(唱홀)을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모든 절차는 찬자의 창홀에 의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전교당 뜰에 서 있던 집사들이 사당 입구 앞으로 와서 두 줄로 선다. 이어 알자(掌者)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의 진설과 위패 등을 점검하고 사당 뜰에 마련된 자리로 돌아온다. 이른바 책임자의 최종 점검인 셈이다. 그런 다음 알자와 찬인(贊人)이 축관과 집사들을 인도하여 사당 뜰로 들어와서 자리에 서서 몸을 굽혀 두 번 절한다.

찬인이 축관과 집사들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면 손을 씻고 동쪽 계단을 통해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분정(分庭)에 의해 정해진 자신의 자리로 가서 서 있다. 집사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알자와 찬인은 제물 점검을 위해 미리 들어와 있는 초헌관 이외의 나머지 헌관을 각각 인도하여 사당 뜰로 들어온다. 한편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그 외의 헌관 인도를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분정에서 알자가 찬인보다 서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모든 제관이 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어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나서 알자가 초헌관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면 손을 씻고 사당 안으로 가서 신위 앞에 가서 꿇어앉는다. 향을 세 번 피우는데, 한지에 향나무 조각을 싸서 불을 붙이고 향로에 넣는다. 알자가 다시 초헌관을 인도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한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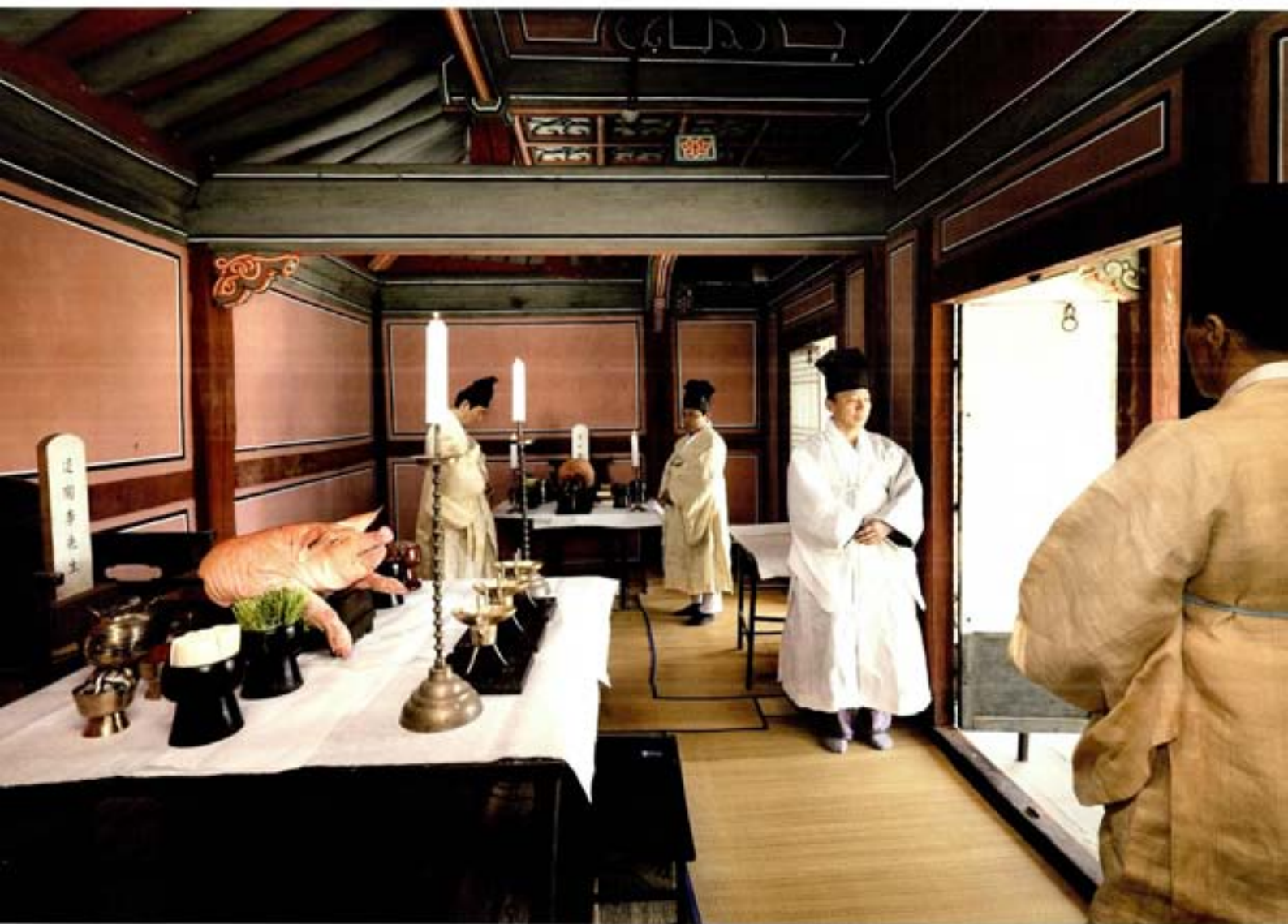
1	2
	3

1. 아침 문안
2. 제물 찬성
3. 의관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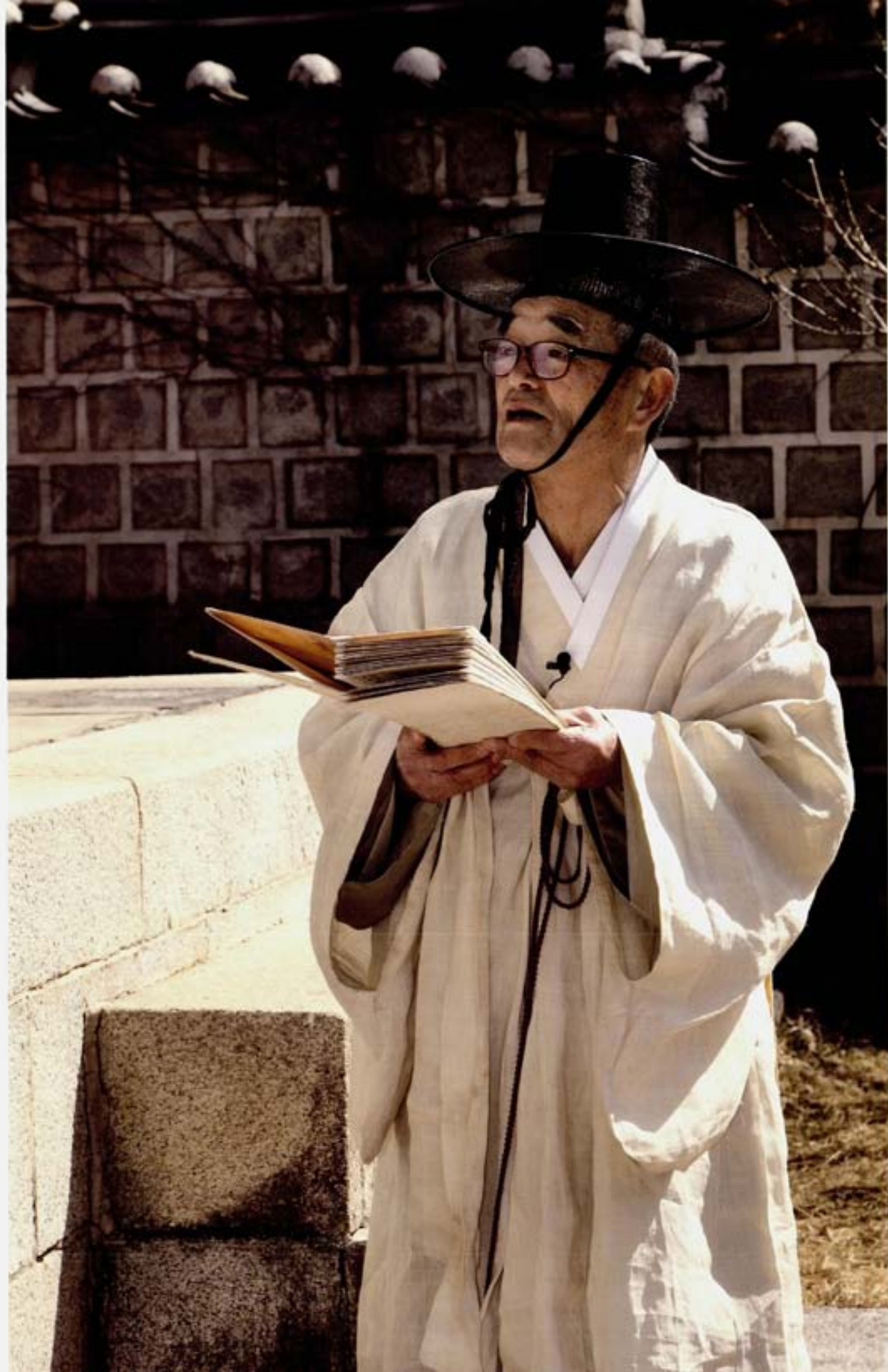




사당 입구 도열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제관



초헌례^{初獻禮}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주^{祭主} 향아리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하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위[元位, 퇴계 이항] 앞에 꿇어앉는다. 전작^{前작}이 제상 위에 놓인 세 개의 술잔 가운데 하나를 내려서 봉작^{奉작}에게 건네주면 봉작은 다시 사준^{司尊}에게 준다. 사준은 술잔에 술을 채워서 봉작에게 건네주면 봉작은 전작에게 준다. 그리고 전작이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면 이를 받아서 다시 전작에게 건네주고 전작이 받아서 제상 위에 올린다. 제상에 놓여있는 술잔을 내리고 올리는 역할의 전작, 제주 향아리에서 술을 뜨는 역할의 사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술잔을 운반하는 역할의 봉작이라는 세 명에 의해 헌작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분정에 나타난 이들의 서열은 사준 - 봉작 - 전작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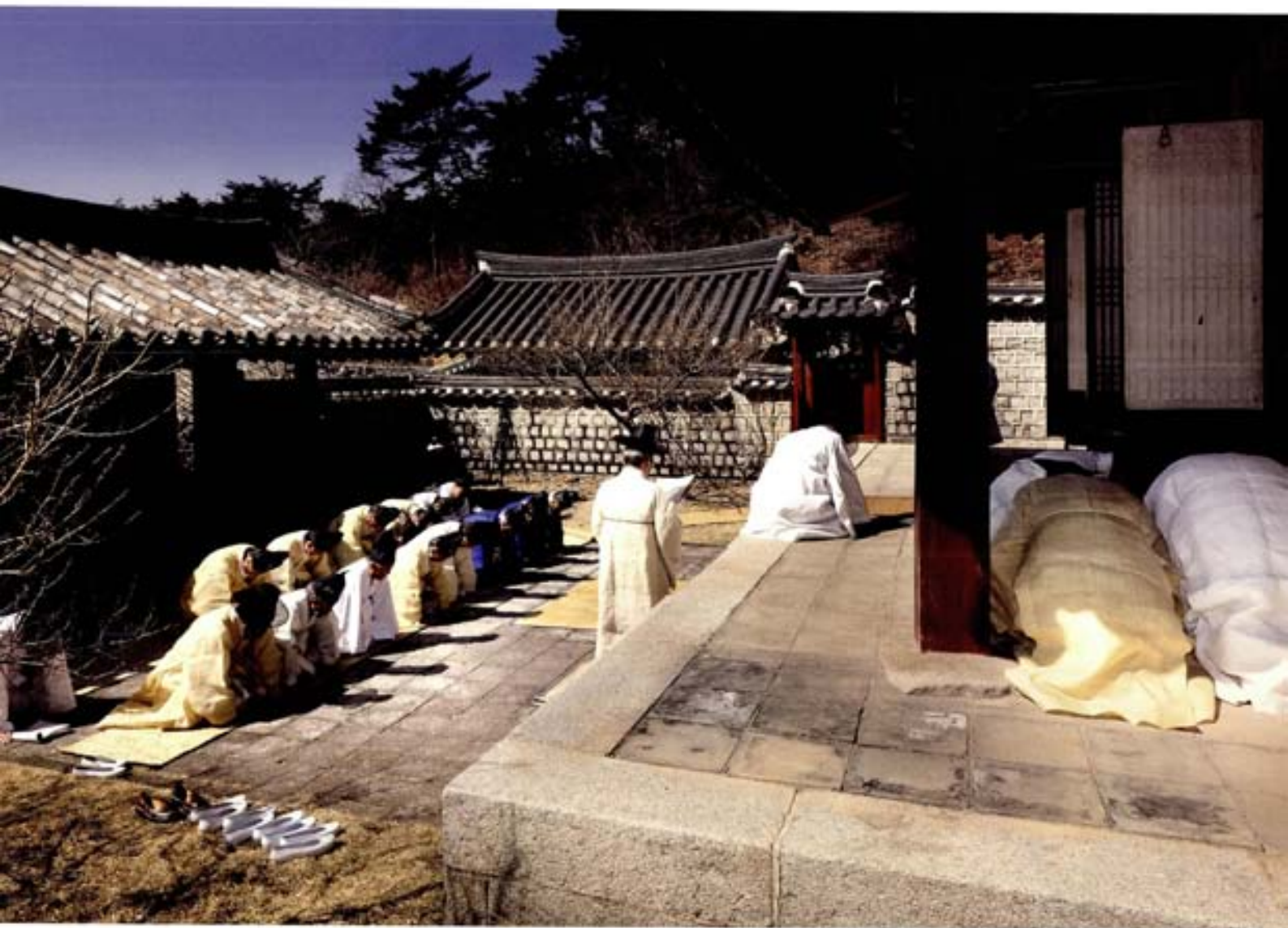
헌작을 마친 초헌관은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뒤로 약간 물러나 꿇어앉는다. 이어 축관이 축판을 들고 축문을 낭독하면 초헌관은 다시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 후 알자의 인도 아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로써 초헌례가 마무리된다.



1. 청축
2. 술잔을 채우는 사준^{司尊}







초헌례 初獻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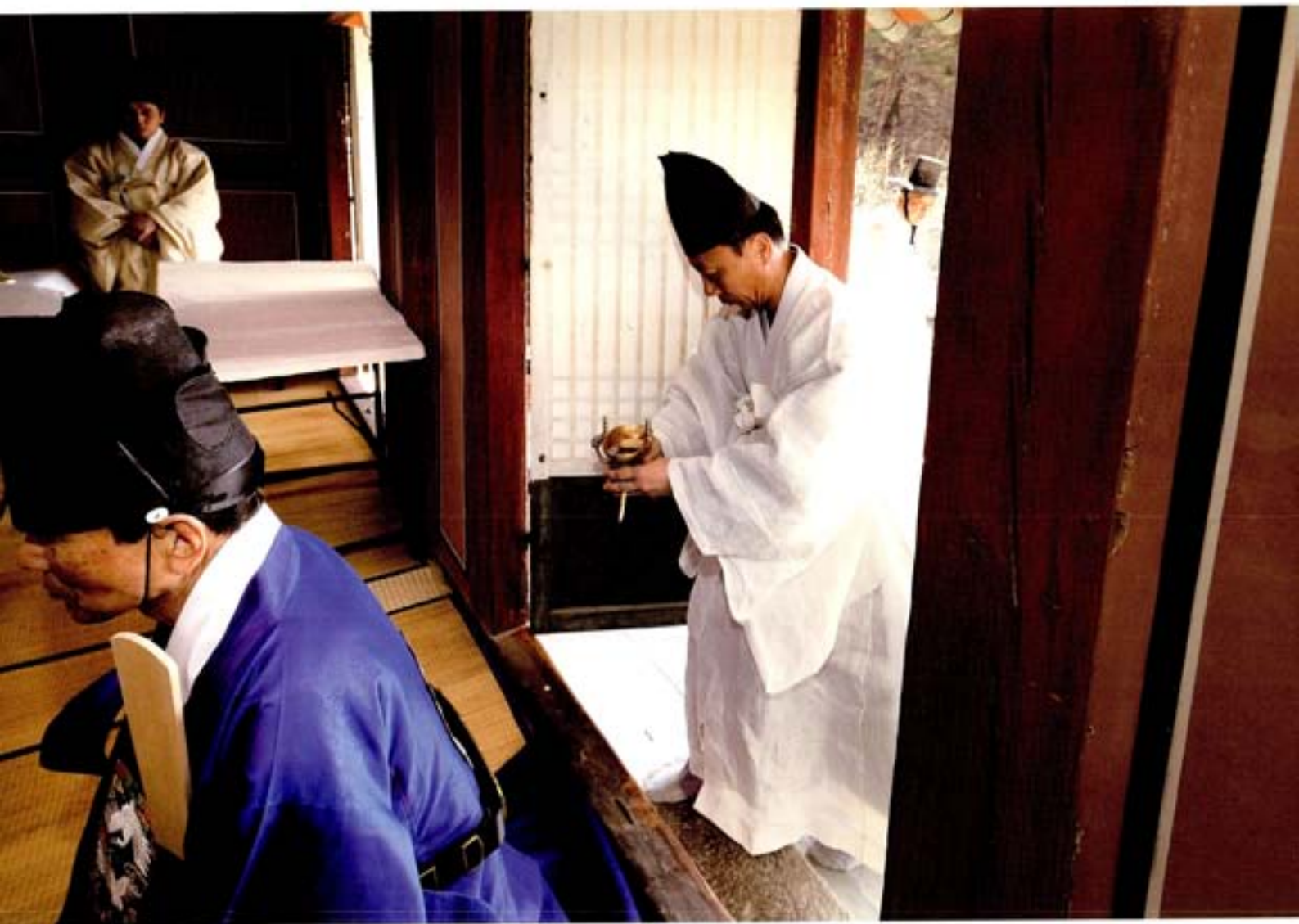


1. 전작 奠爵
2. 독축 讀祝
3. 早鞠 俯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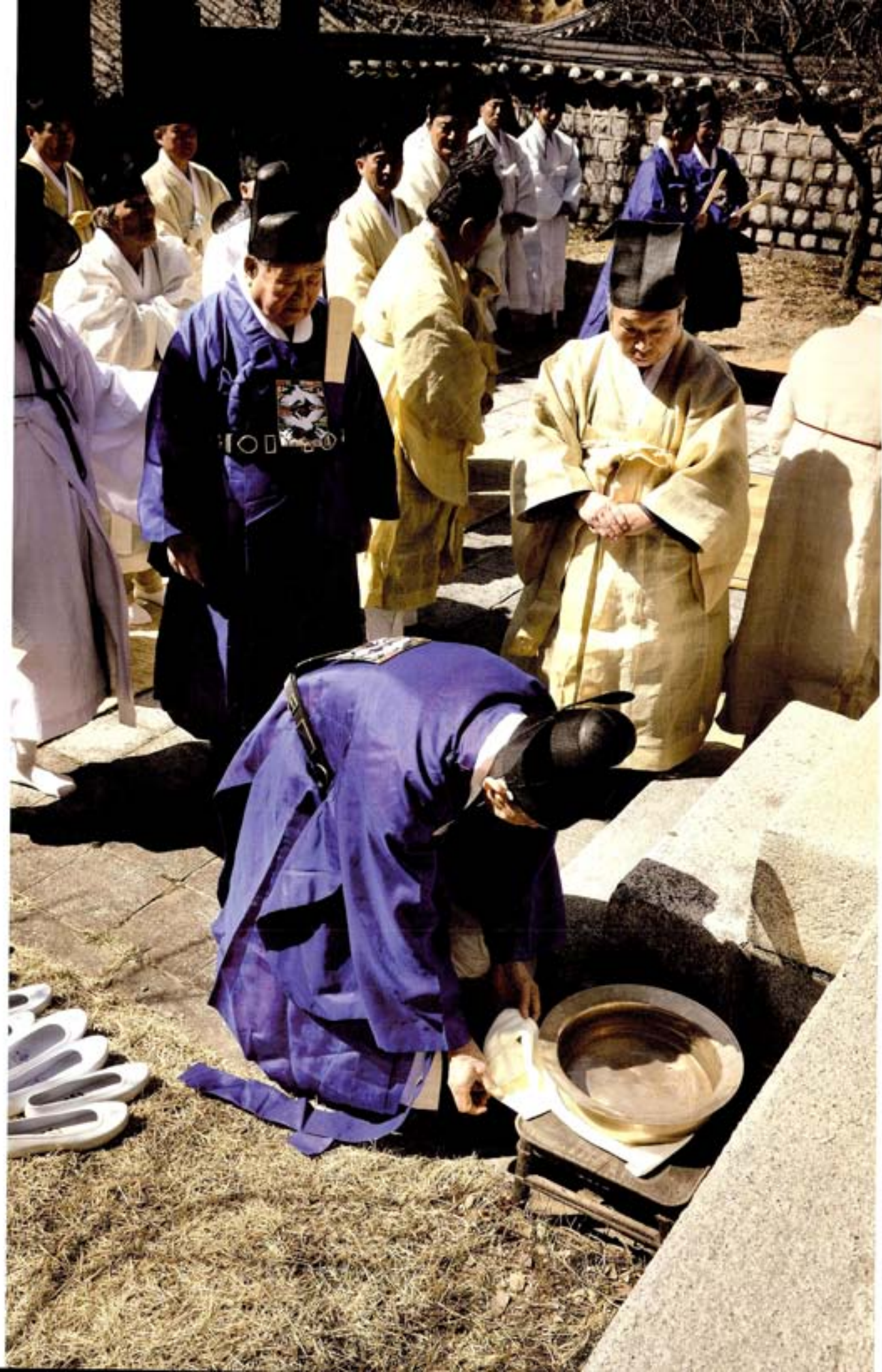
아헌례 亞獻禮

찬인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가서 읊을 하면 아헌관은 손을 씻는다. 다시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제주 함아리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한 후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위[元位, 퇴계 이황] 앞에 꿇어앉는다. 전작이 제상 위에 진설된 세 개의 술잔 가운데 두 번째 술잔을 봉작에게 건네주면 사준에 의해 술잔에 술이 채워지고 봉작은 이를 아헌관에게 건네준다. 아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전작에게 주면 술잔을 제상 위에 올린다. 이로써 세 개의 술잔 가운데 두 개를 올린 셈이다. 이어 아헌관이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찬인의 인도 아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로써 아헌례가 마무리된다.

봉작후 奉作後







종헌례 宗獻禮

찬인 2명이 종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가서 읊을 하면 종헌관과 분헌관은 손을 씻는다. 다시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제주 향아리 앞으로 가서 서로 읊을 한 후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종헌관은 원위 앞에 꿇어앉고, 분헌관은 종향위(從香位) 앞에 꿇어앉는다. 전작 2명이 각각의 제상 위에서 술잔을 내려 봉작에게 건네주면 사준이 술잔에 술을 채우고 봉작은 이를 종헌관과 분헌관에게 각각 건네준다. 그리고는 술잔을 받았다가 다시 전작에게 주면 이를 제상 위에 올린다. 이어 각 헌관은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찬인 2명의 인도 아래 각각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로써 종헌례가 마무리된다.



1. 관세 冠洗
2. 헌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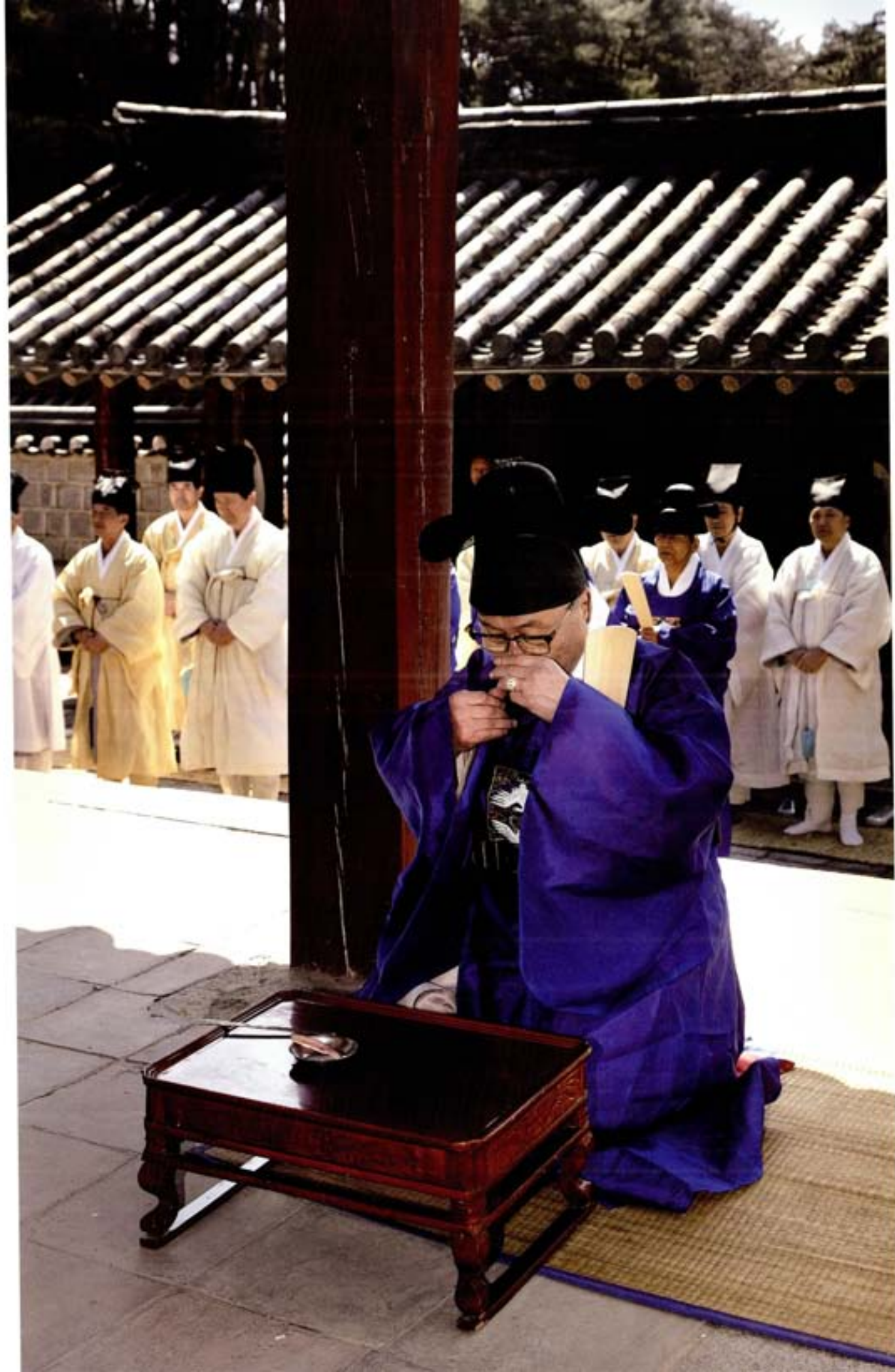


음복수조 飲福受祚

집사가 제주 향아리 앞으로 가서 복주를 뜨고 신위[元位, 퇴계 이황] 앞에 진설된 조육^{조육}을 칼로 베어내어 음복 준비를 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 자리로 간다. 음복 자리에 이른 초헌관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그러면 집사가 초헌관의 왼쪽으로 가서 술잔을 건네주면 받아 마시고 빈 잔을 다시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북쪽을 향해 헌관에게 조육^{조육}을 주면 헌관은 받았다가 다시 집사에게 준다. 음복이 끝나면 헌관은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난 후 알자의 인도 아래 제자리로 돌아와서 절을 두 번한다. 이어 헌관 이하 모든 재관들이 두 번 절한다.



1.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한다.
2. 음복 飲福





- 1. 음복상
- 2. 음복
- 3. 철반두 鐵飯頭



철변두(鐵邊豆)

철변두(鐵邊豆)란 제기로 사용한 변두(邊豆)를 거둬들이는 절차이다. 축관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와 껌의 뚜껑을 닫고 밖으로 나와서 제자리로 간다. 그런 다음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철을 두 변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망예^{망예}

망예^{망예}란 죽분을 땅에 묻는 의식을 말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의 자리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면 죽관이 죽분을 갖고 와서 접어서 구덩이에 묻고 물을 뿌린 후 기왓장으로 덮어놓는다. 망예가 끝나면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다. 이어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아헌관·종헌관·분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사당 밖으로 나온다. 헌관이 모두 밖으로 나가면 죽관과 나머지 집사들이 절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절을 두 번하고 차례로 사당 밖으로 나가서 전교당 대청에 오른다.



1. 창을
2. 죽분을 묻고 기와로 덮는다.





(12) 제공사(祭公事)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이 전교당 대청에 모인다. 전작이 축관 앞으로 가서 읊을 하고, 조사(司祭)는 집례(執禮, 執禮)에게 향사 봉행에서 실수나 예의에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를 묻는다. 집례가 별다른 실수가 없이 무난했으니 물러나라고 하면 이것으로 마치고,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서로 꾸짖고 질책한다.

(13) 응복례 應福禮

제공사가 끝나면 전교당 대청에서 네 명의 헌관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앉고, 나머지 집사들은 남북으로 나뉘어 앉는다. 재유사 가운데 한 사람이 헌관들 앞으로 나와서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백록동규¹² 이자향립약조¹³李子卿立約條, 남전이씨향약¹⁴南田李氏鄉約을 낭독한다.

12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가 백록동 서원에 창안 학규(學規)이다.

13 예안향약이라고도 한다. 1556년 퇴계 이황이 예안지방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향약이다.

14 중국 송나라 때인 1078년 여대충(呂大忠)·여대방(呂大防)·여대균(呂大鈞)·여대림(呂大臨) 형제에 의해 엮여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서 시행된 향약이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원만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 있어야 한다. 이는 다섯 가지의 가르침이다.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넓게 배워야 하고, 상세히 물어야 하고, 깊게 생각해야 하고, 밝게 분간해야 하고, 인정을 두텁게 행하여야 한다. 이는 학문을 하는 순서이다.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말은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실은 두텁고 충실하고 공경스러워야 하며, 분노는 참아야 하고 욕심은 막아야 하며, 착한 데로 옮겨가야 하고 허물은 고쳐야 한다. 이는 몸을 닦는 중요한 비결이다.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의리는 바로잡되 개인적 이익은 꾀하지 말고, 도리는 밝히되 자신의 공로는 헤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하며, 행해서 얻지 못할 때에는 돌이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는 사물을 접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낭독





<이지향림약조李子鄉立約條>

父母不順者 兄弟相關者 家道悖亂者 事涉官府 有關鄉風者 妄作威勢 擾官行私者 鄉長 陵辱者 守身嬌婦 誘脅汚奸者 以上 極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형제끼리 서로 때리며 싸움을 하는 자, 가도(家道) 가족 사이에 지킴이 할 도리가 광패(狂悖)한 자,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매일이 일관하고 어지러운 자, 관청의 일에 간섭하거나 사골 풍기(風紀) 풍속에 따른 규율에 관련되는 자, 망령되어 위세를 조작하여 권가를 시끄럽게 하고 사사로운 일을 감행하는 자, 지역의 먹망있는 어른을 능욕하는 자, 절개 지키는 청상과부를 꾀어 위협하고 몸을 다럽히는 자, 이상은 극벌(極罰)이다.

親戚 不睦者 正妻 疏薄者 隣里 不和者 僑輩 相設罵者 不顧廉恥 汚壞士風者 恃強陵弱 侵奪起爭者 無賴結黨 多行狂悖者 公私聚會 是非官政者 造言構虛 陷人罪累者 患難力及 坐視不救者 受官差任 憑公作弊者 婚姻喪祭 無故過時者 不有執綱 不從鄉令者 不服鄉論 反懷仇怨者 執綱徇私 冒入鄉參者 舊官錢亭 無故不參者 以上 中罰

친척과 화목하지 않은 자, 아내를 소박하는 자,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자, 동년배끼리 서로 구타하고 꾸짖는 자, 염치를 살피지 않고 선비의 풍절(風節) 풍속과 의절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자, 강한 위세를 믿고 약한 자를 업신여겨 침탈하고 다름을 일으키는 자, 무뢰배(無賴輩)가 서로 적당하여 수차례 광패한 일을 감행하는 자, 공사(公事)나 사사(私事)의 모임이 있을 때, 관청청사(廳事)의 울고 그들을 논하는 자, 헛된 말을 날조하여 남을 모함하는 자, 남이 환난을 만났을 때 힘이 미칠 수 있어도 그저 구경만 하고 구출하지 않는 자, 관청의 임무를 맡았을 때 공사(公事)를 방자하여 만패를 끼치는 자, 혼인과 성제례를 아무런 까닭 없이 수행하지 않는 자, 집강(集綱)을 업신여기며 향림(香林)을 따르지 않는 자, 향중(香中)의 공론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求援)을 찾는 자, 집강(集綱)을 맡았을 때 사사로운 일을 위해 제멋대로 향집(香集)에 들어가는 자, 구관(舊官)을 전승하는 자리에 아무런 까닭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이상은 중벌(中罰)이다.

公會 晚到者 素坐 失儀者 座中 喧爭者 空坐 退使者 無故 先出者 以上 下罰

공적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자, 앉은 자리에서 지껄이고 다투는 자, 자리를 비우고 재 편의를 위해 물러가는 자, 아무런 까닭 없이 먼저 자리를 뜨는 자, 이상은 하벌(下罰)이다.

元惡鄉吏 人吏 民間作弊者 賁物使濫徵價物者 庶人陵蔑士族者

못된 짓을 저지르고 민폐를 끼치는 자, 공물(公物)을 나라에 바치는 물건을 거두는 관청로 돈이나 물건을 지나치게 징수하는 자, 서민의 신분으로 사족을 능멸한 자이다.

<남전여씨향약(南田呂氏鄉約)>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文 患難相恤

덕업을 서로 권면하라, 과실이 있을 때에는 서로 경계하라, 예속으로 서로 사귀어라, 한난이 있을 때에는 서로 구휼하라.

15 초헌관 순배에서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분헌관·축관·집례·유생"의 순서로 술을 따르고, 아헌관 순배는 "아헌관·초헌관·종헌관·분헌관·축관·집례·유생"의 순서이고, 종헌관 순배는 "종헌관·초헌관·아헌관·분헌관·축관·집례·유생"의 순서로 술을 따른다.

낭독이 끝나면 음복상을 받는다. 음복상에는 술잔, 쌀·기장·갯·대추를 담은 접시, 돼지고기조각을 담은 접시, 소금이 차려진다. 음복상은 네 명의 헌관 및 축관과 집례에게는 외상[獨床]이 주어지고, 나머지 접사들은 겸상을 받는다. 음복상이 모두 주어지면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을 중심으로 헌관순배(獻官廻拜)가 행해진다. 관리인이 해당 헌관 앞으로 술주전자를 들고 가서 술잔에 술을 따르면서 "초헌관 순배요!"라고 3번 외치면 헌관은 앉은 채로 읊을 하고 술을 마신다. 이런 식으로 아헌관과 종헌관의 순서로 술을 따라주는데, 분헌관은 순배의식에서 제외된다. 한편 음복상에 차려진 곡물과 고기조각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퇴계 선생의 기를 받아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모든 재관들에게 비닐봉투가 별도로 주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이 전교당 축대에서 "파과 아뢰오"라고 세 번 외침으로써 향사의 전과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음복











1.2 향사가 끝나면 종손에게 향사를 잘 마쳤음을 알린다.

4) 천망^{天望}

서원에서 향사 봉행을 위한 집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천망^{天望}이라고 하며, 천^天에 포함되어 후보로 지명된 사람에게 보내는 통보장을 망기^{망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향사가 끝난 후 음복례를 거행하고 나서 천망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향사가 드는 달(음 2·8월)의 초하루[朔日]에 상유사(원장)와 하유사(齋有司와 別有司)가 전교당에 모여서 현관 세 명(아현관·종현관·분현관) 및 측관과 집례^{集禮}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낼 망기를 작성한다. 초현관의 경우에는 원장[上有司]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망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이 유고로 인해 향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도집례^{道集禮}를 선출하여 망기를 작성한다.

원래 도산서원에서는 지역 내(당시 예안군의 각 면)에서 추천받은 명단을 각각 8부 작성하여 재관으로 선정된 사람의 이름에 점을 각각 표시해두면 유사가 명단을 건네받아 유원록^{遊源錄}에 기록해두었다. 선정 시기는 3년(子, 午, 卯, 酉年)에 한 번씩 정알^{正알}이나 봄가을 향사 때이고 대략 15~20명 내외를 선정한다.

2011년 춘향^{春香}의 경우에는 3월 5일(음 2. 1)에 차제를 거행했는데, 원장이 원거리에 계신 까닭에 작년의 도집례와 하유사들이 대신 참석하였다. 아울러 원장의 유고로 인해 별도의 도집례를 선정했는데, 이로써 도집례·아현관·종현관·분현관·측관·집례 등 총 6명에 대한 망기가 작성되었다. 망기는 서식에 입각한 봉투에 먼저 넣고, 이를 다시 우편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였다.

만약 망기를 받은 사람이 집안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입재 날 이전까지 단자^{單子} 향사 봉환야유서^{향사 봉환야유서}를 반드시 보내서 수행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임록^{前任錄}에는 미행공^{未行公}으로 기재해둔다.



陽子書院春時都執禮
學
幼學文
辛卯二在

5) 제물祭物

(1) 진설

도산서원의 상덕사에는 원위^{원위}인 퇴계 이황과 종향위^{종향위}인 월천 조목이 배향되어 있다. 따라서 제물의 진설 역시 이들 신위마다 각각 행해진다. 진설 순서는 원위와 종향위의 순으로 한다. 각 신위 앞에는 제상이 있고, 그 앞에 향상^{향상}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로와 향합이 놓여있다. 진설은 향사 1일전 습례를 마치고 재유사들이 진설도와 대조해가면서 행한다.

진설은 향사 홀기에 명시되어 있는 진설도에 입각하여 행해진다. 원위에는 변두^{변두}를 4변 4두 차림으로 신위의 좌우에 행과 열을 맞추고 놓고, 다음에 보궤^{보궤}를 2보 2궤를 갖추어 변두 사이에 올리며, 보궤 앞에 희생을 담은 조^조를 놓는 순서로 진설한다.

좌4변은 마른 제물을 진설하는데, 제1행에 건조^{건조} 대추를 먼저 놓고 그 뒤에 어수^{어수} 생선포를 놓는다. 제2행에는 백자^{백자} 찻를 놓고 그 뒤에 녹포^{녹포} 사슴자포를 차례로 놓는다.

우4두에는 젖은 제물을 진설한다. 제1행에 구지^{구지} 무추를 먼저 놓고 그 뒤에 녹해^{녹해} 사슴고기 찹인을 놓는다. 제2행에는 청지^{청지} 무를 놓고 그 뒤에 어해^{어해} 닭고기 찹인을 차례로 놓는다.

보궤에는 도량^{도량} 맷살과 솜살을 담는다. 변두 사이의 좌측에 솜살을 앞에 놓고 그 뒤에 맷살을 놓는다. 궤^궤에는 서직^{서직} 기장과 수수를 담는데, 보의 우측에 피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수수를 놓는다.

희생의 경우 도산서원 향사에는 시생^{시생} 대지를 쓰는데, 돼지를 반 토막낸 것을 올린다. 원위에는 머리 부분을 토막낸 것을 진설한다. 다만 예전에는 양생^{양생} 양고기를 올렸으나 후대에 이르러 돼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종향위에는 원위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차린다. 변두^{변두}를 2변 2두 차림으로 신위의 좌우에 행과 열을 맞추어 놓고, 다음에 보궤^{보궤}를 1보 1궤를 갖추어 변두 사이에 올리며, 보궤 앞에 희생을 담은 조^조를 놓는 순서로 진설한다.

좌2변에는 백자^{백자} 찻를 먼저 놓고 그 뒤에 녹포^{녹포} 사슴자포를 차례로 놓는다. 원위의 제1행에 놓인 건조^{건조} 대추와 어수^{어수} 생선포가 생략된 셈이다.

우2두에는 청지^{청지} 무를 놓고 그 뒤에 어해^{어해} 닭고기 찹인을 놓는다. 원위의 제1행에 올리는 구지^{구지} 무추와 녹해^{녹해} 사슴고기 찹인이 생략되었다.

그런 다음 맷살을 담은 보궤를 변두 사이의 좌측에 놓고 그 옆에 솜살을 담은 궤^궤를 진설한다. 원위에 비해 서직^{서직} 기장과 수수가 생략되었다.

희생으로 쓰이는 시생^{시생} 대지의 경우 원위에는 머리 부분을 토막낸 것을 놓지만, 종향위에는 꼬리 부분을 토막낸 것을 진설한다.

진설도를 보면 원래는 희생 앞에 폐^폐가 차려지는데 좌우로 '무진^{무진}', '국갑^{국갑}'이라고 각각 적혀있다. '무진년에 나라에서 명하여 떨어내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정확히 언제, 무슨 이유로 생략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요즈음 '폐'는 진설하지 않는다.

1
2

1. 원위^{원위}(퇴계 이황) 진설
2. 종향위^{종향위}(월천 조목) 진설



(2) 음식

도산서원에서는 음력 2월과 8월에 춘추 향사를 각각 거행하고 있는데 2011년 춘향(음 2. 19, 양 3. 23) 때의 제물을 조사·기록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춘추향사에 전설되는 제물은 동일하다.

도산서원의 배향인물은 원위(元位, 퇴계 이황)와 종향위(從享位, 원위 조부인데, 원위에는 4변 4두와 2보 2괘 그리고 시생(時生)을 전설하고, 종향위에는 2변 2두와 1보 1괘, 시생을 전설한다.

변(邊)에는 물기가 없는 마른 제물을 담는데 전설도에 명시된 제물은 건조(乾造) 대추, 어수(魚鱗) 명인포, 백지(柏子) 잣, 녹포(鹿脯) 사슴육포이다. 어수로 문어포로 사용했으며, 녹포는 사슴육포로 구하기가 힘든 까닭에 쇠고기포로 대신하고 있다.

두(頭)에는 물기 있는 젖은 제물을 담는다. 전설도에 명시된 제물은 구지(龜脂) 부추, 녹해(鹿醢) 사슴고기 찹, 청지(靑脂) 무, 어해(魚醢) 물고기 찹이다. 구지란 원래 부추를 일컫는데, 2011년 춘향 때는 근지(芹脂)인 미나리를 전설했다. 녹해란 사슴고기를 말린 뒤에 그것을 얇게 썰어 누룩이나 소금물을 섞어 좋은 술에 담가서 항아리 속에 백일동안 두어 만드는데, 사슴고기를 구하기 힘든 까닭에 오늘날에는 쇠고기로 대신한다. 어해는 멸치 젓갈을 사용한다.

보(脯)와 괘(胾)에는 곡물을 담는다. 원위에는 2보 2괘에 도량(稻粱) 멍쌀과 좁쌀과 서직(黍稷) 기장과 수수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설도를 보면 양보(梁脯) 앞에 '계미(稷米)'라고 적혀 있고, 직괘(稷胾)에는 '국감(穀臠)'이라고 되어 있다. '계미년에 나라에서 명하여 덜어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확히 언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좁쌀(梁)과 수수(稷)를 생략하고 멍쌀과 기장을 각각 전설하고 있다.





두부와 변기에
차리는 제물



6) 제구祭具

도산서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진설도에 명시된 제기의 종류는 오늘날 향사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크게 변¹ · 두² · 보³ · 궤⁴ · 조⁵ · 작⁶ · 정⁷ · 회⁸ · 준⁹ · 용¹⁰ 등으로 분류된다.

변¹두²

물기 없는 마른 음식, 곧 건조^{乾造} 대추, 어수^{魚鱸} 생선포, 백지^{柏子} 잣, 녹포^{綠布} 사슴죽포를 담은 굽이 높은 그릇을 변¹이라고 한다. 변은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죽변^{竹邊}이라고도 한다. 직경은 4촌³9푼⁴, 길이 1촌⁴4푼⁵, 높이 5촌⁹푼¹⁰이다. 물기 있는 젖은 음식, 곧 구저^{具底} 부추, 녹해^{綠醃} 사슴고기 찹임, 청저^{靑底} 부추, 어해^{魚醃} 물고기 찹임을 담은 그릇을 두²라고 한다. 두는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목두^{木頭} 혹은 목기^{木器}라고도 한다. 직경은 변과 동일하다.

변은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는 오른쪽(서쪽)에 대칭되게 차린다. 국가 대사^{大祀}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中祀}에는 10변 10두를, 소사^{小祀}에는 8변 8두 혹은 4변 4두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원위인 퇴계 이항에게는 4변⁴ 대추, 魚鱸, 생선포, 柏子, 魚鱸, 사슴죽포 4두⁴ 부추, 魚鱸, 사슴고기 찹임, 黃荬, 부추, 魚鱸, 물고기 찹임을 차리고, 종향위인 원천 조목에게는 2변² 柏子, 魚鱸, 사슴죽포 2두² 부추, 魚鱸, 물고기 찹임을 차린다.

도산서원에서는 현재 변¹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재질의 두²를 이용한다. 변의 재질이 대나무인 까닭에 변질이 쉽게 되어 약 10년 전에 바꾸었다.

보³궤⁴

보³는 도¹와 량²을 담은 동^銅으로 만든 제기이다. 모양은 밖이 네모지고 안은 둥글고 뚜껑이 있다. 높이 7촌, 너비 8촌 1푼, 길이 2촌이다.

궤⁴는 서¹ 기²와 작³ 수수를 담은 타원형의 제기이다. 역시 동^銅으로 만들면 밖과 안이 모두 둥글고 뚜껑이 있다. 높이 6촌 7푼, 너비 5촌, 길이 2촌 8푼이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보는 신위의 왼쪽(동쪽)에, 궤는 오른쪽(서쪽)에 진설한다. 원위에는 2보² 黃荬과 黃荬 2궤² 기¹와 수수를, 종향위에는 1보¹ 黃荬 1궤¹ 黃荬를 차린다. 다만 원위의 진설도에 양보^{兩保} 앞에 '계미^{芥米}'라고 적혀 있고, 직궤^{直軌}에는 '국감^{國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미^{芥米}에 나라에서 명하여 떨어내었다'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요즈음에는 좁쌀[粱]과 수수[稷]를 생략하고 뱀쌀과 기장을 진설하고 있다.

두²변¹: 재질변화로 두²를 변으로 이용보³궤⁴



조

조

조는 소, 양, 돼지 등의 희생^{희생}을 담는 도마처럼 생긴 제기인데, 대개 그 위에 목생갑^{목생갑}을 얹는다. 길이 1척 8촌, 높이 8촌 9분이다. 원위에는 머리 부분을 토막낸 것을 올리고, 종향위에는 꼬리 부분을 토막낸 것을 진설한다.



직

직

직은 신위에 술을 올릴 때 사용하는 동^동으로 만든 술잔으로, 위로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아래 세 발이 달려있다. 『시경』의 『예기도설』에 말하기를 “위로 솟아있는 두 개의 기둥은 술을 다 마시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였다”고 한다. 높이 8촌 2분, 너비 2촌 9분, 길이 3촌 3분이다.

직은 작이나 축판을 올려놓기 위해 동^동으로 만든 받침이므로 모양은 네모지며 가로세로 9촌 2분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받침을 축점^{축점},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작점}이라고 한다.



준

준

준은 동^동으로 만든 술항아리로, 산과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다. 예시에는 초헌용으로 예제^{예제}를 담는 희준^{희준}, 아헌용으로 양제^{양제}를 담는 상주^{상주}, 종헌용으로 청주^{청주}를 담는 산외^{산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산서원에서는 초헌관에게는 희준을 사용하고 나머지 헌관에게는 준을 그대로 이용한다. 희준은 소모양의 술항아리로, 높이 8촌 2분, 길이 6촌 8분, 깊이 3촌 7분이다.

작은 술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로 동^동으로 만들었으며, 길이 12촌 9분, 깊이 1촌 1분, 직경 2촌 1분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어 용작^{용작}이라고도 한다.



3. 도산서원 향사의 특징 - 변화의 측면

매년 춘추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正日)에 거행되는 향사를 봉행하기 위해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향사 사흘 전에 서원으로 들어와서 재계에 입했다. 2009년의 추향부터는 종전의 2박 3일로 봉행하던 향사 기간을 1박 2일로 단축함에 따라 1일 전에 입재하여 이튿날 향사를 거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방분향례(朔望分香禮)와 정월 초5일에 거행하는 정알례(正盃)도 원래는 1일 전에 입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9년부터 당일 오전에 입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는 시간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 위주의 전통사회와 달리 시간의 제약을 크게 받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향사 시간 역시 종전에는 축시(祝時) 새벽 1시~3시에 지내던 것을 2009년부터는 오전 11시로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공개로 치러지던 향사를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여성의 사당참배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복을 갖춰입지 않으면 서원 출입문인 진도문(進道門)을 통과할 수 없었던 규정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향사에 참석하는 유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관람객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사의 내용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석미례(石米禮)의 경우 지금은 팔과 기장을 담은 함지를 들고 진도문 밖으로 나와 열정(烈情)의 수도에서 손을 넣지 않고 아홉 번을 일어 씻는데, 안동댐이 건설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서 거행하였다. 이는 신위에게 올릴 제물인지라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씻음으로써 제물에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안동댐 건설로 강이 사라지게 되면서 진도문 앞에 위치한 일반관람객들이 물을 마시고 손을 씻는 수도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제물의 신성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생겨 제물이 담긴 함지에 손을 대지 않고 물로만 씻어내는 방식을 여전히 준수함으로써 어느정도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향사의 예행연습인 습례(習禮)도 예전에는 일일이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실습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서재(西齋)에서 책자를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제물을 구입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 춘향(春香)에 사용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향사 이틀 전인 3월 21일 오전 11시 무렵 도포를 차려입은 재유사와 별유사, 관리인 내외가 안동 시내의 신시장(재래시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제수를 구입한 후 제물 이외의 나머지 제수를 구입하기 위해 근처 마트로 향했다.

서생(西生) 제의의 경우에도 원래는 생돼지를 메고 와서 생간쫄(生肝絞)을 행한 다음 고직사 옆에서 직접 도축하여 돼지 내장 등의 부산물은 재관들의 야화(野火)에 사용했으나, 도축법 개정에 의해 2009년부터 상육점에 부탁하여 반으로 토막낸 냉동돼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야화상에 차려내던 돼지 내장 또한 시장에서 구입하여 장만하게 되었다. 비록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4. 고고사_{庫告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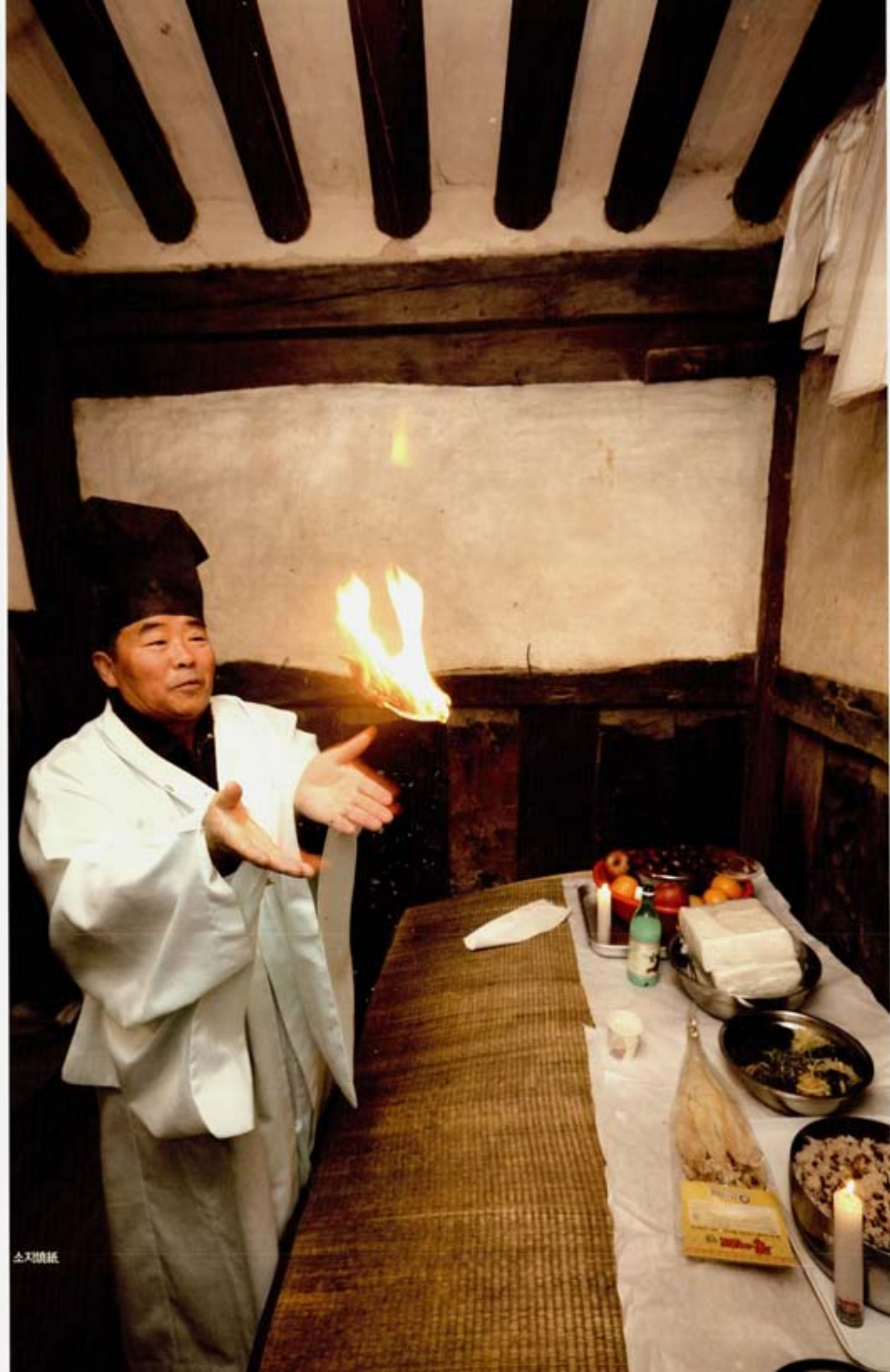
도산서원에서는 음력 정월 14일 해시_{時時}: 약 9시~11시에 고직사_{庫直舍}의 제기고_{祭庫}에서 관리인이 고사_{告祀}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를 고고사_{庫告祀}라고 한다. 이는 유사를 비롯하여 관리인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고고사의 준비와 거행은 관리인 가족이 전담하고, 서원 관계자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소요되는 경비는 서원 재정에서 지출한다.

오후 5시 무렵 관리인이 제기고로 가서 미리 청소를 해두고, 작물쇠를 다시 채워둔다. 그런 다음, 부인과 함께 동재_{東齋}의 재유사_{在遊舍}의 3명과 변유사_{便遊舍}의 3명의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유사들은 내일(보름) 있을 삭방분향례를 위해 재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밤 9시 무렵이 되자 관리인 부부와 아들이 재물을 얹은 쟁반을 나르기 시작했다. 제기고 내부의 북쪽 벽 아래에 마련된 커다란 탁자 위에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린다. 상차림은 전설도나 책자 등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오랜 기간 되풀이해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설한다. 별다른 제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6종에 이르는 과일(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함께 넣고, 백설기 두 덩어리는 스테인리스 양분예, 또 다른 양분예에는 보름나물 10가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오곡밥이 담긴 커다란 찬합을 전설한다. 또 비록 엄격한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제사는 격식보다는 정성으로 지내야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듯 이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재물을 옮기고 차린다.

전설을 마치면 관리인은 도포를 차려입고 유건을 쓴 차림으로 나와서 양초에 불을 켜다. 그리고 종이컵 술잔에 막걸리를 가득 붓고 절을 두 번 올린 후 도포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지_{所紙}를 여러 장 꺼내서 한 장씩 불사른다. 첫 장을 올릴 때는 “서원 고고사 올시다! 고고사 올시다!”라면서 제기고 천장 위로 소지를 날려 보낸다. 두 번째는 “서원 유사님들 소지올시다! 유사님들 소지올시다!”라고 외친다. 세 번째는 “이영철(관리인) 올시다! 을묘생_{乙卯生} 소지올시다!”라고 자신을 위한 소지를 올린다. 네 번째는 “임자생_{壬子生} 소지올시다!”라고 부인의 소지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기묘생_{己卯生} 소지올시다!”라고 장남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를 마치면 창고의 귀들을 위한 음복을 마련한다. 오곡밥·나물·떡·과일 등 제상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한지에 싸서 제기고의 북쪽 벽 위쪽의 난간에 놓아둔다. 제고를 지키는 귀들에게 배주는 일종의 배리인 셈인데, 실제로 며칠 후에 와보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고고사대종회 진설도





陶書院院務處理規程

陶書院運營委員會

5. 도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도산서원의 전교당 내부 현판에는 양사¹⁶⁾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원규가 있다. 이는 서원의 학칙과 같은 것으로,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이 규율을 준수해야 했다. 원규의 내용은 ㉠스스로 통제하면서 힘써 수행하며 학문을 이룰 것, ㉡도리를 지키고 예법을 따를 것, ㉢서로 존중하고 살피줄 것, ㉣청렴하고 올바른 행동을 행할 것, ㉤서원 내에서는 학문 이외의 시끄럽고 더러운 것은 금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6 원규 원문은 부록에 수록

- ㉠ 선비들이 독서하는 데는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아 국가의 임성하는 법을 좇고, 성현의 교훈을 지켜서 만 가지 착한 것이 본래 내게 갖춘 것을 알아야 한다. 옛 도리가 오늘날에도 실천될 수 있음을 믿어 모두 힘써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바탕(體)을 깨끗하게 하고 쓰임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제사지집(祭時集) 문장의 과거공부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널리 통하도록 힘쓸 것이나, 마땅히 내외(內外), 본말(本末), 경중(輕重), 완급(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나머지 사색·요망·음탕한 글을 원내에 들어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 유생들은 뜻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길을 정직하게 하여야 한다. 학업은 원대한 것이므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을 도의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는 좋은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비천하여 얻고 버리는 것에 현혹하며, 저속한 지식과 속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지와 소망이 오로지 탐욕에만 있는 자는 나쁜 학문이 되는 것이다. 만일 행실이 과하여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경서를 어지럽히고 도리를 거슬러서 추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혀 예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서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물리칠 것이다.
- ㉢ 유생들은 항상 각 방에 조용히 있으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진하라.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강론하는 일이 아니면, 다른 방에 가서 불데없는 매기로 날을 보내 서로 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여 공부를 폐해서는 안 된다.
- ㉤ 깨달음이 알려지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무릇 의관, 행동, 언행을 착실하게 살피고 힘쓰며, 서로 살피주고 선행해야 한다.



도산서원 원규

- 성균관의 명륜당에 미천^{伊川} 선생의 사물장^{事物章}, 화암^{華嶽}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열 가지 가르침, 천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장^{興夜寐章}을 써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서원에도 또한 이것을 벽에 써서 걸어 서로 타이르고 일해준다.
- 책은 문 밖에 나갈 수 없고, 여자는 문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술은 빚을 것이 아니고, 형벌은 쓸 것이 아니다. 책은 나가면 잃기 쉽고, 색은 들어오면 더러워지기 쉽고, 술은 학사^{學老}에 아첨한 것이 아니고, 형벌은 유생의 일이 아니다.
-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품관 두 사람으로 정한다.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알고 행동이 옳아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따르는 선비 한 사람을 골라 상유사를 시키되, 모두 2년 만에 고대한다.
- 유생과 유사는 힘써 예절에 맞게 서로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여야 한다.
-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완전히 돌봐준다. 유사와 유생은 하인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서원의 일과 동서재의 일 외에는 모든 사람이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개인의 노여움으로 벌주지 못한다.
-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문장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새로 길러내는 뜻을 받들으니,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오는 자가 서원 일에 대하여 그 제도를 더하고, 그 규약을 훼손함이 없다면 사문에 어찌 더항하지 않겠는가?
- 아이들은 수업을 받거나 불러오는 일이 아니면 입덕문^{入德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 기숙생은 어른과 아이를 불구하고 정한 수는 없으나 재능을 이룬 뒤 서원에 들어온다.

현재 도산서원 원무처¹⁷치리에 대한 규정은 1796년(병진년) 2월 만들어진 '도산서원의절초¹⁸海山書院諸部'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후 1972년 '도산서원원규시행세칙 및 의절초¹⁹海山書院院施行細則 又 儀節'를 거쳐 지금의 원무처리규정²⁰海山院處理規程이 완성되었다. 서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된 이 규정은 1977년 시행되었고,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몇 차례 개정²¹되었다.

서원을 이끌어가는 임원은 원장, 재유사²²재유사, 별유사²³별유사, 운영위원, 감사,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선임²⁴된다. 임원들은 현임²⁵운영위원, 도산금분재현²⁶海山金分在現의 주손, 안동시장, 안동교육장, 안동시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장, 대학 학장 등이 학식, 덕망, 인품, 능력 등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중 정원 배수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당회에 올린다. 그러면 당회에서는 후보자 중에서 해당 임원을 선임한다. 재유사는 임기가 6개월이고, 기타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당회에서는 기타 후보자 중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재직이 가능하다.

도산서원의절초에 의하면 원래 서원의 일을 맡았던 사람을 유사²⁷유사라고 불렀었다. 이때는 지금과는 달리 유사²⁸의 직책이 상유사²⁹상유사, 재유사, 공사원³⁰공사원, 구관도감³¹구관도감, 별유사, 별고유사³²별고유사, 수리소유사³³수리소유사, 단소유사³⁴단소유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상유사는 유사 중 가장 웃어른으로 원장을 겸임하며 서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 지금은 원장과 상유사를 구분하여 원장은 제례 시 초헌관으로서의 역할만을 남겨놓고, 서원의 업무는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산서원원규에 의하면 원래 상유사의 임기는 2년³⁵이다. 하지만 도산서원의절초 "上有司一人任期一期 正調及春秋享日定爲三期 或留任"라는 기록에서 정알, 춘향, 추향이 각각 1기에 해당하고, 이 제례를 기준으로 상유사를 임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2년의 임기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도산서원의절초의 이 기록은 도산서원에서 춘향과 추향을 비롯해 정알 의례도 매우 중요했었음을 시사해준다. 현재까지도 도산서원에서는 정알을 중요한 의례로 생각하고 있다.

재유사는 2명으로 임기는 1년이었고, 서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임기가 2년으로 바뀌었다. 별유사는 3명으로 3년의 임기를 갖는다. 이들은 분서와 장부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미리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무의 역할을 했다.

공사원, 구관도감, 별고유사, 수리소유사, 단소유사는 지금은 사라진 직책이다. 공사원은 서원의 일을 맡을 사람을 추천하여 짐을 짊어나, 선비를 고를 때 추천하는 일을 했다. 별고유사는 책판³⁶책판을 간행하고 인쇄하는 일이나 배와 다리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처리했고, 수리소유사는 서원 담장의 대³⁷대, 사³⁸사의 계단, 섬돌, 개울 등을 고치는 일을 맡았다. 단소유사는 시사단³⁹시사단의 비각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서 처리했다. 이들 유사들은 철저하게 서원의 규칙을 준수하였으며, 규칙을 따르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전교당⁴⁰전교당의 모임에서 잘못을 논의하고 규탄하여 벌을 받았다고 한다.

도산서원을 움직이는 것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이다. 당회⁴¹는 서원, 향교 등을 중심으로 한 유

17 1977년 음력 1월 5일 시행
1980년 4월 12일 개정 시행당회 의결
1981년 2월 9일 개정 시행당회 의결
2003년 5월 13일 개정 시행운영위원회 의결
2009년 1월 23일 개정 시행운영위원회 의결
※ 운영위원회 의결 후 당회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규의 개정이 가능하다.

18 院有司以迄庶僚幹品從二人選定
又擇儒士之諳事理者行齋虎所推舉
者一人 以上有司皆二年相遞

립들의 결사체이며 전통적인 유럽 의결기구로는 요즘으로 치면 유럽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당회의 소집이나 의결 등은 관례에 따르는데, 과거의 관례에는 없는 ①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②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의 선임 ③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 등은 당회를 통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①예산의 작성 및 집행의 결산 ②원장, 각 유사,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 후보자의 확정(1981년 추가) ③원무 처리규정변경(1981년 추가), ④재산의 취득 및 처분(1981년 추가)¹⁹, ⑤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981년 추가) 등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운영위원회는 입원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위원 6명을 두며,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5일 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며, 회의가 소집되면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 5인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만일 10일 이상 소집을 하지 않을 때는 위원연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 중에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결된 사항은 집행 후 당해 년 최초의 당회 때 집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퇴계의 후손²⁰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별유사²¹가 겸임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대행자가 지명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하고 위원 6명은 운영위원회의 선지를 통해 임명된다.

이외 감사, 자문위원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감사는 2명으로 원무 전반을 감사하여 당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퇴계 제자들의 후손 모임인 도운회가 있어 도산서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당회에 참석하여 함께 중요사항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2009년 2월에는 도운회 운영위원회의를 겸하여 도산서원 당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당시의 회의록을 통해 도운회의 구성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문	자문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운영 위원	감사	학술	의전	편집	홍보	총무	재무
9명	7명	1명	1명	14명	45명	2명	10명	3명	1명	2명	1명	1명

도운회 운영위원회 때 당회 개최가 가능했던 것은 도운회 참여자들이 모두 유럽이며, 도산서원 당회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원의 운영을 위한 재산은 부동산, 동산, 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부동산, 동산에 대한 각각의 대장을 비치하여 그 소재 및 변동사항을 명백하게 해야 하며, 현금의 금융기관에

19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치하고 위원장, 상임위원이 합의하여 인출해 사용하되, 증거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서원의 수입은 동산 및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과 기증·보조의 기타수입으로 하는데, 주요 보조금은 도산서원 입장료 40%가 해당한다.

지출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고, 당해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황이 화실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를 얻어 일시 차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추가예산을 의결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 가능하다.

2) 전승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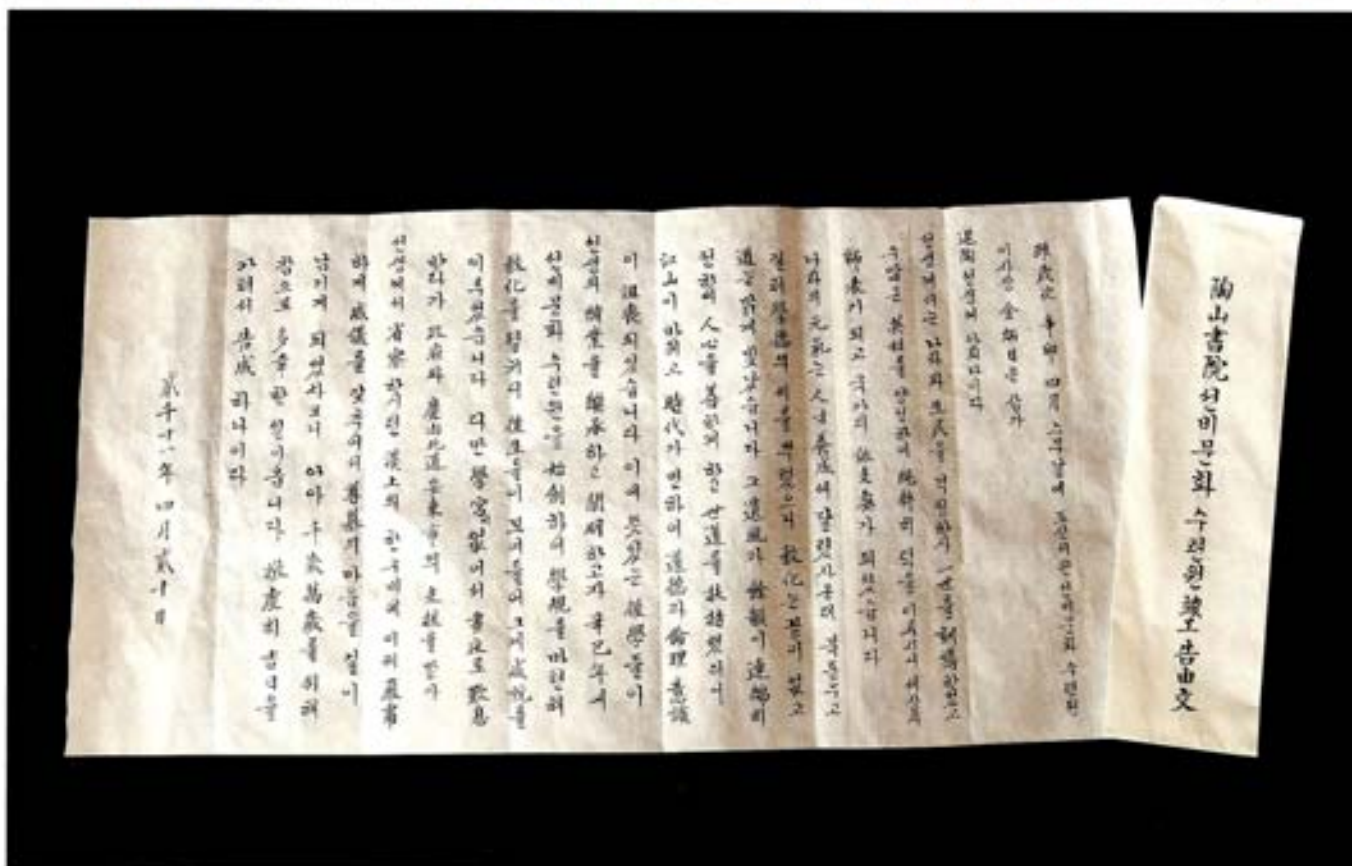
도산서원에서는 유교문화 중 특히 선비정신의 전승을 위해 서원제례와 유학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선비정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승인된 비영리 수련기관으로 도덕입국²⁰의 이념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2001년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이 승인²⁰되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선비문화체험을 통해 선비문화를 계승, 창달하여 올바른 사회윤리 실천 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 공무원, 교대생, 기업임직원, 기관단체임직원,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군장병,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관련 유적탐방, 의례체험, 선비와의 대화, 체험수련, 강의·분임토의 및 자기성찰, 영상수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정은 1일 과정,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는 서원의 의례, 서원관련 유적지 탐방, 종손과의 만남, 선비정신의 이해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추가된다. 이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의 정신과 그 삶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의 가치 있는 정신세계의 유산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 선비문화체험수련원 연혁

- 2001. 11.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 승인
- 2002. 04. 경상북도교육청 특수분야연수 기관 승인
- 2003. 01.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법인 인가
- 2005. 01. 재분원 부설 전통예절교육원 개설 승인(대구)
- 2006. 01. 경상북도 민간교육기관 연수기관으로 지정
- 2011. 04.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산하(연동시 도산면 토끼리 468-4 / 5,390㎡(1,633평))





교육과목	세부내용	교육목적
현장탐방	도산서원 선비문화유적지 지역문화유적지 유교문화박물관	안동지역에 형성된 선비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선비 정신, 선비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정신을 이해
의례체험	상음례 암묘례 도산서원 의례 사당참배 재례체험	도산서원에서 정식으로 실시하는 서원의례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을 이해하고, 제사의 의미와 현대에 맞는 재례문화의 습득, 부모와 조상에 대한 보은(報恩)의 의미를 깨닫게 함
선비와의 대화	원로의 대화 종택체험(종손과의 대화)	원로의 경험담을 통한 실의 지혜 터득, 종택 종손으로부터 정신적 자산과 선비의 일상, 정신세계를 이해함
체험수련	망기쓰기 활인심방 도산서원학습체험 종가기거문화 체험 생활예절 옛 자녀들의 놀이와 공부 가족 공동생활 체험 서원 입원 재계	옛 선비들의 체력단련 정신수양·학습일상 체험, 종가의 일상생활·예절·공동체 생활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의 경건함이 깃든 생활을 이해함
강의·토론	선비문화 사례 발표·토론 선비와 학문세계 선비정신과 현대교육 선비문화이론(기초) 선비와 생활예절 예비 스승과의 대화 유학과 선비문화 선비정신과 문화 안동 종택 문화 선비정신과 자녀교육 가족관계 알기	선비정신과 문화, 특색, 선비정신의 근저인 유학의 정신을 탐색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 등을 토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선비정신이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인지함
영상수련	다시 태어난 퇴계 가족문화 보존 관리 선비의 참모습 철수의 사귄여행	영상을 통한 선비문화의 이해

1

2

1.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준공식
2. 도산서원선비문화 수련원 준공 교육문
告 由 文

◎ 선비체험 수련과정

과정	1일 과정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
장소	학교	수련원	수련원	수련원
인원	180명	180명	180명	180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묘(상역사) • 교재를 통한 선비정신 이해 • 인사예절 실습 • 활인심방 실습 • 영상시청(도산서원 및 퇴계종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묘(상역사) • 서원의례 체험 (선비의식) • 도산서원 및 유적지 탐방 • 퇴계 종택 방문 및 종손과의 대화 • 선비정신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묘(상역사) • 서원의례 체험 • 도산서원 및 유적지 탐방 • 퇴계 종택 방문 및 종손과의 대화 • 선비정신 이해 • 영상자료 시청(선비문화의 이해) • 유교문화 박물관 탐방 •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분임토의 • 전통놀이 체험 • 인사예절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묘(상역사) • 서원의례 체험 • 도산서원 및 유적지 탐방 • 퇴계 종택 방문 및 종손과의 대화 • 선비정신 이해 • 영상자료 시청(선비문화의 이해) • 유교문화 박물관 탐방 •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분임토의 • 전통놀이 체험 • 독립기념관 탐방 • 하회마을(충효당) 탐방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부설 교육원으로는 전통예절교육원, 거경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전통예절교육원은 전통의례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40여 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대상자는 자치 단체장이나 협력 및 유관(단체) 기관의 특별 추천자이다. 1, 2학기 동안 약 35주의 교육이 실시되며, 수료생은 수료증(전통예절교육원장)과 예절사자격증(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을 수여 받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례와 생활(현대 일반 예절) ㉡생활인의 교양(기예와 보학 등) ㉢전통관·제례 및 성년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전통 및 현대 혼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다도 및 음식 예절 ㉥전통 예절과 생활 사례 ㉦전통 및 현대 제례 의미와 내용 및 실습 ㉧현대 생활 예절 및 언어 예절 ㉨전통 및 현대 상례 의미와 내용 및 절차와 실습 ㉩ 전통 유가 견학(전통 및 현대 예절과 생활 사례) ㉪미래의 예절(미래에 활용할 예절 사례) 등이다.

거경대학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부설 교육원으로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정신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수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인간 본성 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퇴계의 가르침인 ‘경학’을 공부하는데 주요 내용은 성학심도의 강해講解·독송誦誦, 퇴계 선생의 활인심방活人心方 실수實踐, 정좌거경靜坐居敬, 자연을 통한 소요유逍遊, 견기명상 堅氣冥想 등의 수양과정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공부, 마음공부, 글공부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진미를 맛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도산서원과 인근 이십여 개의 서당, 정자를 강당으로 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심신수련을 진행하는데 이 거경대학의 퇴계 ‘경’문화는 일본의 사찰이나 학교에서 일부러 찾아와 체험할 정도로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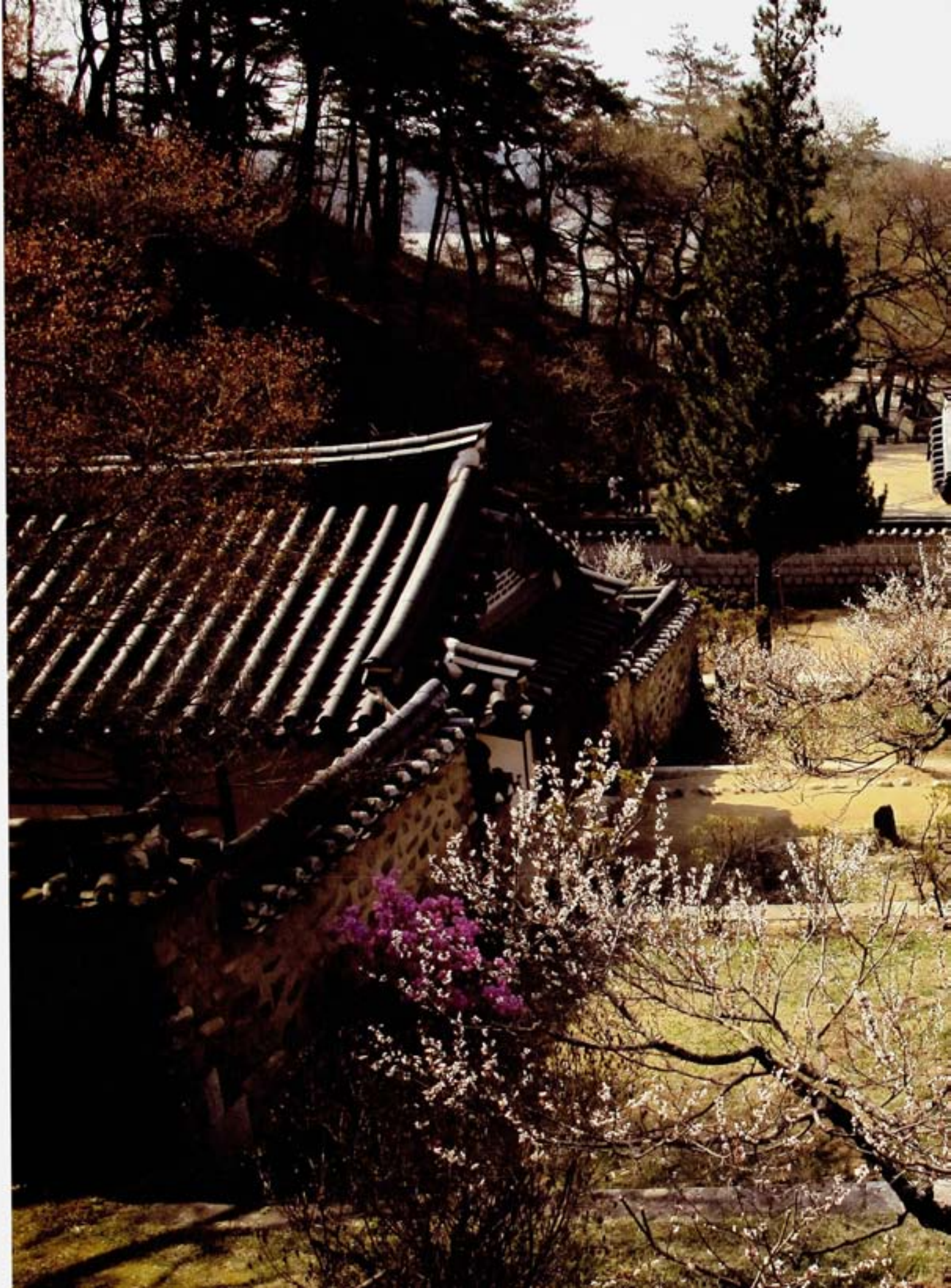
이들 프로그램은 내용은 단순한 전통 유교문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실생활 예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도산서원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도산서원의 선비교육은 미래 지향적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친화·융합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이러한 교육활동은 도산서원과 서원의 선비정신의 전승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선비문화체험 중 퇴계종택 종손과의 만남을 통해 선비문화의 경험담을 듣고 삶의 지혜를 배운다.









○海○東○經○

—●—
도
산
서
원
홀
기
—●—

도산서원
홀기

참배홀기(參拜笏記)

- 謁廟者入就拜位(알묘자입취배위)
알묘자는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 執事者就位(집사자취위)
집사자도 나아가시오
- 代表詣盥洗位(대표예관세위)
알묘자 대표는 손 씻는 곳으로 나아가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詣神位前(예신위전)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降復位(강복위)
자리로 돌아오시오
- 在位者皆再拜(재위자개재배)
모두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禮畢出(예필출)
예를 마쳤으니, 나가시오

정알홀기(正謁笏記)

- 諸執事入就拜位(제집사입취배위)
집사들은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 再拜(재배)
절을 두 번 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各就位(각취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謁者引獻官入就拜位(알자인헌관입취배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 引詣盥洗位(인예관세위)
(알자는 헌관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 獻官以下皆再拜(헌관이하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禮畢出(예필출)
예를 마쳤으니 나가시오

正謁時笏記

諸執事入就拜位○再拜○盥洗○各就位○謁
者引獻官入就拜位○引詣盥洗位○盥洗○引詣
神位前○跪○三上香○俯○伏○興○引降復
位○獻官以下皆再拜○鞠躬拜○興○拜○
興○平身○謁者引獻官以下以次出

향례정재일알묘홀기(享禮正齋日謁廟笏記)

- 謁者引獻官就門外位(알자인헌관취문외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사당 문밖으로 나가시오
- 引入廟庭(인입묘정)
인도하여 사당 뜰로 들어오시오
- 諸執事各就位(제집사각취위)
모든 집사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 謁者引獻官詣盥洗位(알자인헌관에관세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가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 獻官以下皆再拜(헌관이하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禮畢出(예필출)
예를 마쳤으니 나가시오

2011년 춘향(春享)홀기

- 諸執事先詣外位(제집사선예외위)
모든 집사자는 사당 입구 앞에 서시오
- 謁者引初獻官點視陳設(알자인초헌관점시진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진설을 점검하시오
- 執事開櫝(집사개독)
집사는 주독을 여시오
- 開蓋(개개)
(보와 궤의) 뚜껑을 여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就外位(알자급찬인각헌관취외위)
알자와 찬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배위)
찬자는 축관과 집사를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再拜(재배)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拜(국궁배)
몸을 굽히시오,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詣盥洗位(찬인인축급제집사예관세위)
찬자는 축관과 집사를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각 자리로 돌아오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入就拜位(알자급찬인각헌관입취배위)
알자와 찬자는 헌관을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再拜(재배)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에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初獻禮(초헌례)

- 行初獻禮(행초헌례)
초헌례를 봉행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尊所(알자인초헌관에준소)
알자는 초헌관을 제주(祭酒) 향아리 장소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少退跪(소퇴궤)
뒤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으시오
- 讀祝(독축)
(축관은) 축문을 낭독하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亞獻禮(아헌례)

- 行亞獻禮(행아헌례)
아헌례를 봉행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에관세위)
찬자는 아헌관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引詣尊所(인예준소)
(찬자는 아헌관을) 제주(祭酒) 향아리 장소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자는 아헌관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무릎을 꿇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終獻禮(종헌례)

- 行終獻禮(행종헌례)
종헌례를 봉행하시오
- 贊引各引終獻官分獻官詣盥洗位(찬인각인종헌관분헌관에관세위)
찬자는 종헌관과 분헌관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盥洗(관세)
손을 씻으시오
- 各引詣尊所(각인에준소)
(찬자는 종헌관과 분헌관을) 제주(祭酒) 향아리 장소로 인도하시오
- 各引詣神位前(각인에신위전)
(찬자는 종헌관과 분헌관을) 각각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궐)
무릎을 꿇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자는 종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飲福受胙(음복수조)

- 執事詣尊所(집사에준소)
집사는 제주(祭酒) 향아리 장소로 나아가시오
- 以爵酌福酒(이작작복주)
복주를 술잔에 따르시오
- 執事進減神位前胙肉(집사진감신위전조육)
집사는 신위 앞의 조육을 덜어내시오
-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알자인초헌관에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北向跪(북향궐)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 執事進獻官之左(집사진헌관지좌)
집사는 헌관 왼편으로 나아가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시오

- 獻官飲卒爵(헌관음졸작)
헌관은 술을 마시시오
- 執事受虛爵(집사수허작)
집사는 술잔을 받으시오
- 執事北向以胙授獻官(집사북향이조수헌관)
집사는 북향하여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授胙(헌관수조)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 授執事(수집사)
집사는 받으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히시오, 엎드리시오,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집사는 조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 再拜(재배)
절을 두 번 하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撤籩豆(철변두)

- 祝入撤籩豆(축입철변두)
축관은 변두를 철거하시오

- 在位者皆再拜(재위자개재배)

모두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망예(망예)

-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알자인초헌관예망예위)

알자는 초헌관을 망예의 장소로 인도하시오

- 北向立(북향립)

북향하여 서시오

- 祝取板降自西階(축취판강자서계)

축관은 축판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시오

- 瘞坎(예감)

구덩이에 묻으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오

- 謁者引初獻官贊引引獻官以次出(알자인초헌관찬인인헌관이차출)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자는 (나머지)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가시오

- 祝及諸執事皆復拜位(축급제집사개복배위)

축판과 집사는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오시오

- 再拜(재배)

절을 두 번 하시오

- 鞠躬(국궁)

몸을 굽히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拜(배)
절을 하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平身(평신)
바로 서시오
- 以次出(이차출)
차례대로 나가시오

Ⅲ



부

록

-
1. 소수서원 원규
 2. 도산서원 원규

陶山書院院規(도산서원원규)

-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學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墜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 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詭經叛道 醜言辱親 敗群不率者 院中共議擯之
-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偲相觀而善 泮宮明倫堂 書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以相規警
-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刑謂諸生或有司 以私怒捶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 則不可 全赦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 同議論罰)
- 院有司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 院屬人完恤 有司與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不行甚
- 童蒙 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入德門內
- 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 乃升院



2011년 11월 21일 초판 4쇄 인쇄
2011년 11월 25일 초판 1쇄 발행

기획

송민선(부행문화재연구실장)

글

김경선(성균관 석전원 교수),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명전(학예연구사), 안경해(연구원)

사진

서현경(서현강사진연구소)

편집·교정

임영진(학예연구관), 이명전(학예연구사), 안경해(박수연·황진연구원)

발행

국립문화재연구소

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Tel. 042)860-9235 Fax. 042)861-4927

www.nrich.go.kr

출판

예매

150-0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9번지 백산디지털벨리 1702호

Tel. 02)745-8334 Fax. 02)742-4201

저작권©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1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Printed in KOREA.

ISBN 978-89-6325-770-9 93370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469-01

지정 표 지 - 광대루 내추형 160g	Color 재 목 - 무광금색(DIC 2276a)
면 지 - 마미이드 불력 180g	부 제 - DIC 2276a
내 지 - 광대루 내추형 130g	이미지 - DIC 651a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